

한국 YWCA

2020년 5·6월호
May · Jun Vol. 567

특집 코로나 이후, 변화의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 생명공동체로의 회복
YWCA,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다

기획① YWCA 동일임금의 날 운동
기획② 한국YWCA 정책교육

평화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여성
제20대 국회 아청법 개정 및 N번방 방지법 통과에 부처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YWCA 성명서

남북공동선언문, 실천만 남았다

2000년 6월 15일, 남과 북은 분단 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들이 만나 화해와 협력의 선언을 만들어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합의사항의 조속한 실천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라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 선언은 남북을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차원에서도 냉전의 대결에서 공존의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지난 20년간 남북관계의 기본 문서이자 원형이 되어왔다. 6.15 선언은 2007년 10·4 선언으로 이어졌고, 남북 간 위기의 10년을 지나, 2018년에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새로운 시대의 기쁨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한반도는 다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부당한 관계 전락, 북미 간 이행되지 않는 약속, 강력한 경제 제재 앞에 대화를 담은 북한의 완강한 태도, 그리고 세계 정세에 의존적인 한국 정부의 자세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남측 일부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조치를 진행하는 등 남북 대화는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6.15 선언의 정신은,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평화 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 그리고 남북 상호 합의의 실천적 선언이라는 데에 있다. 한반도 평화의 기본 정신인 6.15 선언을 기억하며, 우호적이지 않은 주변 정세 속에서도 갈등 구조를 평화의 물줄기로 이루어내겠다는 열망과 실천력, 그리고 상상력이 필요한 때이다.

코로나19는 군사력이라는 국가안보에서 생명과 존엄이라는 인간안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 간의 신뢰와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북한은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완공식을 미루고, 평양종합병원 건설 착공 계획을 앞당기고 있으며,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보건 부문에 7.4% 증액 편성된 예산안을 통과했다. K-방역으로 인정받는 남한은 국방비를 감축하여 약 2조원을 복지 예산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때에 남북은 보건 분야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한반도 공동체의 번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남북 선언문은 충분하다. 이제 실천만 남았다. 구체적 이행을 위해 남북의 시민사회들이 만나고, 각계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마을과 공동체들이 교류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결단을 통해 교착된 현 상황을 평화의 흐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북한 정부는 남북대화의 통로를 재개하고 공동선언에 기반한 남한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국YWCA는 평화 분위기 조성을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 정세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내고자 노력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연대를 요청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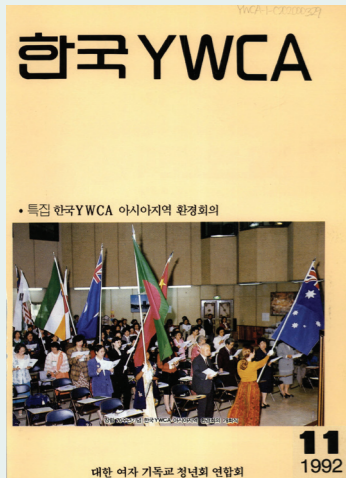
한국YWCA연합회
2020년 6월 15일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성남 031.708.2503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세종 044.865.2432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속초 033.635.3523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인천 032.424.0524	통영 055.646.2547
광명 02.895.1966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파주 031.945.5998
광양 061.762.0012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1	제주 064.711.8322	평택 031.651.7701
광주 062.609.1300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제천 043.645.2580	포항 054.274.4444
김해 055.332.6000	사천 055.833.2344	안양 031.455.2700	진주 055.755.3463	하남 031.793.7771
남양주 031.577.7762	서귀포 064.762.1400	양산 055.367.1144	진해 055.542.0020	군산 063.462.4491
남원 063.632.7002	서울 02.3705.60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논산 041.736.7393	서천 041.951.64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여성, 환경과 지구의 조화’



월간 <한국YWCA> 1992년 11월호에서 '아시아지역 환경회의'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아시아 9개국(일본, 태국, 인도, 스리랑카, 홍콩,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말레이시아)과 호주, 스웨덴Y 대표 30명과 국내환경관련 기관, 여성단체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패널 토의, 리우 환경회의의 보고, 나라별 환경운동 사례 발표, 각국 환경운동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천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주제 강연으로 최기철 교수(서울대 명예교수)가 '여성, 환경과 지구의 조화'를 주제로 "죽음의 길고 달려가고 있는 역사를 바로 돌려놓기 위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환경교육'(장원 대전대 교수), '환경정책'(이달곤 서울대 교수), '민간단체의 역할'(정용 연세대 교수), '리우 환경보고', '유엔환경개발회의', '지구환경회의' 등의 강연이 있었다.

이 대회에서 생태계 파괴와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재인식하고 아시아 지역의 환경실태를 전망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환경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연합회는 아시아지역 환경회의의 보고서를 제작해 참가자를 비롯한 세계Y와 회원Y, 환경단체 등에 발송했다.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 무해한 농약과 자동차 연료를 개발하고 청소년들에게 환경문제의 중대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제2차 아시아 환경회의는 1992년 회의에서 약속한대로 1995년 10월 25일~29일까지 일본에서 열렸다. 아시아지역회의는 인간과 수많은 생물의 생명공동체인 지구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UN의 지도 아래 10년 간 진행되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1차 세계환경회의가 열린 후 1992년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 리우 세계환경회의가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YWCA, YMCA 등 민간단체 대표 60여 명이 회의에 참가했다. 스톡홀름회의에서 지구촌 환경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다루었다. '환경선언'이 채택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구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날로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리우 회의에서는 지구현장으로 일컬어지는 '환경리우선언'이 채택되었고 기후변화방지협약과 생물종 다양성보전협약이 포함되었다.

한국YWCA연합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1992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여성, 환경과 지구의 조화'를 주제로 '아시아지역 환경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지구의 상처만큼 인류의 상처도 깊어지고 있다는 원리를 되새기고 아시아 지역 여성들의 힘을 모아 지구를 살려야만 인류도 생존한다는 취지를 내걸었다.

(출처_ 한국YWCA 80년사)

2020. 5·6 한국YWCA



표지이야기
월성핵발전소 기준 반경 20Km 이내에 21만 명이 거주하는 울산 북구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추가건설>을 막고자 울산YWCA가 <울산 북구 주민투표>가 실시된 6월 5일(금) 투표소를 지켰다.

2020년 7·8월 주요일정

6월 22일(월)~7월 3일(금)
온라인 YWCA 정책교육

7월 9일(목), 23일(목), 8월 27일(목)
길위의 평화포럼(1~3차)

7월 27일(월)
한반도 종전 캠페인

제56권 제3호 통권 567호
2020년 6월 12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미디어소통위원회 김민주 · 김은주 · 백수경 · 이경순
이은혜 · 이하나 · 정선경 · 조한나

편집 배정미 · 이주영 · 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퇴계로18길 77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6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지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대한민국 청년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 | 이수진
- 05 **말씀 묵상** 한국YWCA를 위한 정오 기도

특집 코로나 이후, 변화의 방향은

- 06 **특집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 생명공동체로의 회복 | 이종관
- 09 **특집②** YWCA,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다 | 편집실

기획① YWCA 동일임금의 날 운동

- 13 남녀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와 동일임금의 날 운동 | 김은경
- 16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은 국정과제다 | 김난주
- 19 YWCA 댄스챌린지 온라인 캠페인 | 편집실

기획② 한국YWCA 정책교육

- 22 **탈핵** 탈핵반대 가짜뉴스 팩트체크 | 김해창
- 24 **성평등** 이 시대의 페미니즘을 읽다 | 백소영
- 26 **평화·통일** 평화협정과 비핵시대 | 정옥식

28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가야 할 길 | 이윤숙

- 30 **평화**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 최수산나
- 32 **여성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 김은주
- 34 **여성②** 여성을 겨냥한 성착취는 진공 속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 이지원
- 36 **미디어와 사회** '데이터 3법'이 놓친 것들 | 오병일
- 38 **청년토크** 내 인생이 잠깐 일시정지 된 느낌이야 | 대학·청년Y

40 **이달의 현장 ①** 강남역혐오범죄 4주기 서울YWCA 예배 | 김예리

- 42 **이달의 현장 ②** 광주YWCA 제26회 오월Y시민포럼 | 편집실
- 44 **이달의 현장 ③**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 여진경

45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선한 영향력 | 오수경

- 47 **연합회 소식**
- 49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한국YWCA 입장문**
- 50 **회원YWCA 소식**



이수진
대학·청년YWCA 회장

대한민국 청년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

2020년,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를 마주했다. 코로나19는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 전체를 흔들고 있다. 코로나19가 환자와 노인에게는 죽음이라는 공포를 안겨주었다면, 청년에게는 '실업'이라는 공포를 남겼다. 감염도 두렵지만 현실적인 생계 문제, 취업 준비 활동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더욱 크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청년들이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대출을 갚기 위해, 혹은 취업 준비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던 청년들은 코로나 감염만큼이나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약 47만 명이 줄었는데, 이는 IMF 경제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고 한다. 정규직 채용 공고는 아예 없다시피 하고, 파트타임도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청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은 실업과 실직뿐이 아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공공기관과 각종 기업의 신규 직원 채용 일정은 물론, '스펙'이 되는 각종 자격증 시험과 공무원 시험까지 연기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구직 활동이라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 2-3년에 걸쳐 준비한 취업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에 대한 좌절감, 두려움이 실질적 공포였다. 준비했던 시점에 제때 취업하지 못하고 나이 제한으로 기업이 채용하지 않는다는 두려움도 따라왔다.

코로나19는 대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강의로 수업이 대체되고, 행사는 취소되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며, '대학생활' 자체를 시작하지 못했다. 그러나 등록금은 그대로다. 전국 대학 학생회 등이 모인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는 등록금에 대한 반환 또는 환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이 전국 203개 대학 2만1784명 학생을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9.2%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등록금 동결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반환을 거절했다.

그렇다면 현재 청년들은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학습을 제공받고 있을까? 전대넷의 조사에 따르면 원격수업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6.8%에 불과했다.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할 때, 교수 인건비와 시설이용 및 관리비, 학생 지원비, 실습 재료비 등을 고려한다. 하지만 현재 시설은 폐쇄되었고, 실습 활동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시설 이용 등 학생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한 사항들에 관한 비용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위기 대응을 위한 대학의 예산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등록금의 반환에 대해 소리친 청년들의 목소리가 답 없는 메아리가 된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교훈을 남겼다. 그래도 코로나로 '알비'를 잃은 청년들에게나 청년프리랜서를 지원해 주는 등 긴급대응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불안한 계층이 누구인지를 아는 계기가 되었다.

재난사회를 마주하는 YWCA의 활동들이 가장 낮고 작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한국YWCA'를 위한 정오 기도

한국YWCA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올해 진행될 연합회와 회원YWCA의 재구조화 여정, 그리고 한국YWCA회관의 변화 과정을 위해 2월 21일(금)부터 9월 20일(일)까지 기간을 정해두고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한국YWCA'를 위한 정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오 기도 16주차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들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시고, '남은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로 남아, 하나님 주신 모든 생명 보듬는 새싹을 틔우길 원합니다. 그 소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의료진과 모든 봉사자들도 평안의 새 힘 얻도록, 순간마다 낙심케 하는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YWCA목적에 찬동하고 YWCA가치로 살아가는 회원들이 YWCA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한국YWCA회관 공사를 맡은 이들의 손을 지켜주시고 기간 안에 안전하게 마치도록 매일 정오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공통 묵상 말씀 |

밭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이사야 6장 1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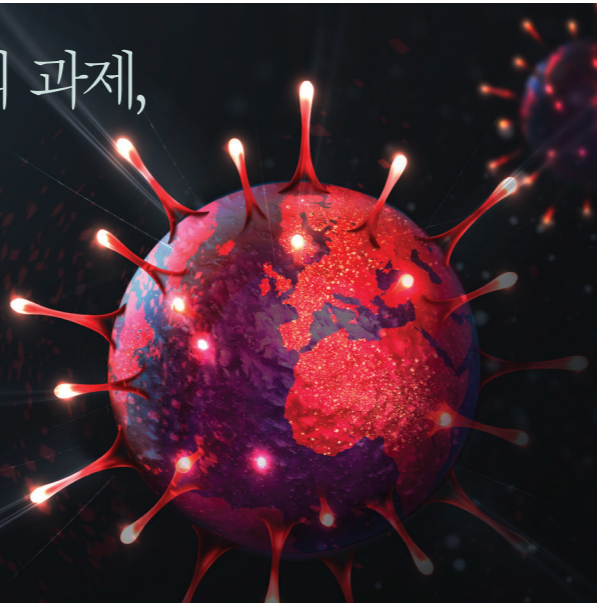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16절).

| 공통 기도제목 |

-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환자들, 의료진, 모든 봉사자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소서.
- 연합회와 53개 회원YWCA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 YWCA가 변화되어야 할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해 그릇이와 같이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씨를 틔우게 하소서.
- YWCA목적에 찬동하는 회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성장하고 정의, 평화, 생명을 살리는 지역사회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절망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YWCA가 되게 하소서.
- 한국YWCA회관 공사를 맡은 자들의 손을 지켜주시고 기간 안에 안전하게 마치도록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공간으로 세워 주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 생명공동체로의 회복

이종관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공과 인간의 미래운명

2020년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쟁에 휘말려 들었다. 그 적은 우리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또 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를 공격해온다. 최첨단을 자랑하는 현대 의학은 이 적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식별했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결국 긴급히 도피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도피하였는가. 우리의 집으로? 아니다. 우리는 잠시 집을 거쳤을 뿐 사실상 디지털 공간으로 피난을 갔다. 그리고 이 피난은 20세기 이후 역사의 과정을 보면 단순한 피난이 아니다. 그것은 2차대전 이후 완만히 진행되다가 21세기 이후 가속화의 단계로 들어선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공으로 급속화되는 과정이다. 이제 미래 인간의 삶의 터전은 디지털 공간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과연 이 급속한 디지털 도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에게 ‘디지털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재난으로 닥쳐올까. 아니면 코로나란 단어의 원래 뜻이 왕관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미래에 영광의 왕관을 선사할까. 이 문제는 인간의 미래 운명이 무엇인지를 전망하기 위해 반드시 생각해볼아야 할 문제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선물 : 고독과 정신적 삶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침공으로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기에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 공한 혜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들은 ‘코로나블루’라는 홀로됨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나 아렌트는 저서 <정신의 삶>에서 이 홀로됨의 상황에 두 가지 양상이 있음을 밝혀낸다. 그 하나는 남들 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일상적 사회적 삶이 정지되면서 겪는 고립인데, 이 상황에서 외로움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홀로됨의 상황에서 괴로워하는 자는 사실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버림받는 미아가 되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이는 홀로됨의 또 다른 양상을 살펴 보면 밝혀진다. 홀로 있음의 또 다른 양상을 아렌트는 고독(Solitude)이라 한다. 이 상황은 홀로됨으로써 그동안 남들에 뒤쳐져 상실되었던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으로 충전되는 정신적 삶이 전개된다. 이제 자신의 삶과 세계를 정신적으로 성찰하는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러한 고독의 기회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고독의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이란 이 시대의 위기를 깊이 있게 성찰해보자.

코로나 팬데믹과 현대 문명의 야만

한 시대 위기는 그 시대 문명의 야만을 폭로하는 과정이다. 현재 전지구적 코로나 위기도 현대문명의 야만이 폭로되는 과정에 다름아니다. 이미 21세기 이후 두 번의 심각한 위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이 위기는 현대 경제가 경제적 부실의 위험을 투기 상품으로 가공하여 전 세계 경제를 파생상품의 도박판으로 운영하는 ‘카지노 자본주의’임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현대 경제를 떠받치는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는 경고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대 문명의 야만성을 폭로하는 세 번째 위기를 겪고있는 것이다.

한번 물어보자. 정녕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이란 이 미증유의 위기가 바이러스에 의해 전세계를 덮친 팬데믹이 될 것일까. 사실 바이러스는 RNA에 불과할 뿐 전 세계로 전파될 능력이 없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바이러스의 숙주가 된 우리 인간의 전 세계를 유목민처럼 떠도는 ‘글로벌 노마드’ 생활양식이다. 그런데 이 생활양식은 어디서 유래하는가. 그것은 현대 문명의 토대를 결정짓고 있는 경제구조에서 발생한 것이다.

생명공동체 회복이 절박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제

그리고 이 경제구조는 전 지구적 규모의 엄청난 인간 이동을 가속화함으로써 소비를 증폭시키는 ‘초이동 소비자본주의’이다. 이 ‘초이동 소비자본주의’에서 자본, 과학기술, 권력은 이윤 극대화를 향해 융합하는데 이를 통해 생산된 현대인의 생활양식이 ‘글로벌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 생활양식은 곳곳에 대규모 동물공장을 건설하여 다양한 육류를 전세계로 유통시키킨다. 이곳에서 초밀집으로 사육되는 동물들은 바이러스의 돌연변이와 전염 위험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전염병은 동물공장을 진원지로 또 인간 숙주의 ‘글로벌 노마드 생활양식’을 통해 제트기를 타고 전파되어 전 지구를 덮친다.

결국 현재 전세계를 덮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초이동 소비자본주의’(Hyper Mobile Consume Capitalism) 플랫폼으로 자본, 과학기술, 권력이 독특하게 융합하여 제조해낸 생물폭탄이다. 그리고 그 기폭장치는 인간 숙주의 생활양식이다. 이제 이 폭탄이 생물폭탄답게 조용히 폭발하여 그러나 많은 생명이 희생 당하고 있다. 매년 전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동물이 동물공장에서 전염병으로 생명을 잃다가 이제 인간마저 생명을 대거 잃고 있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은 생명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는 존재론적 신음이다. 따라서 이 자본, 과학기술 권력의 융합 양상을 혁신하여 생명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절박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삶의 보금자리를 디지털 공간으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현대 문명의 야만이 디지털 공간의 사실상 지배자인 인공지능에 의해 더욱 가속적으로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할 리스크가 고조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역사의 진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현재 과학기술, 자본, 권력의 융합 플랫폼인 ‘하이퍼 모바일 소비자본주의’를 벗어남으로써 생명융화공동체의 회복을 향해야 하는 요청의 울림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 울림에 응답하며 행동해야 하는 실천적 책임을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슈퍼인텔리전스나 포스트휴먼에게 떠 미룰 수 없다. 그 책임은 오로지 인간에게 부여된다. 인간은 생명공동체에서 유일하게 현재보다 나은 미래의 가치를 향해 결단할 수 있는 ‘미래적 존재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듣기 좋은 인간에 대한 찬사가 아니다. 빅터 프랑클이란 유대인 출신 신경생리학자이며 철학자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그 참혹한 유대인 수용소에서 깨달았다. 인간은 조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나 그 조건에 대해 취할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로, 미래로 향하

는 인간의 역사는 진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진화는 주어 진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학적 적응과정이다. 그러나 인간은 보다 나은 가치를 향해 결단할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보다 나은 가치를 향해 진보할 수 있다.

바이러스는 진화하지만 인간은 진보한다.

현재 과학기술과 권력의 방향은 시장이윤 극대화에 매몰된 자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으로 진행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역사의 진보의 행로를 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자본 축적의 목적과 또 자본의 동원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2008년 이후 인간 미래의 진보를 향해 자본, 권력, 과학기술의 현재 융합양상의 혁신을 결행하는 인간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 움직임으로부터 포스트 코로나가 미래의 인간에게 양관으로 다가올 희망이 미미하지만 돌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기업 운동이다. 이 운동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환경파괴나 양극화를 극복하는 사회적 진보를 위해 돈을 동원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그저 깃발과 목소리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진보를 이룩할 수 있는 기업활동이 필요하며 또 기업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적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이미 1980년대부터 설립된 Triodos Bank는 바로 사회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이다. 뿐만 아니다. 이러한 사업은 또 성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연구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영국의 North Hampton 대학은 바로 대학 전체가 바로 이런 목적을 지향하는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민운동 : 생명공동체를 향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민운동이 가야 할 방향을 그려보면서 이 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 코로나 바이러

스의 전세계적 확산은 결국은 인간의 문제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초 이동 소비자본주의’가 현대인을 유인 혹은 강요한 삶의 방식에서 인간은 바이러스를 전세계를 공격하는 폭탄으로 가공한 기술자가 된 것이다. 까뮈가 <페스트>에서 말했듯이 결국 페스트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페스트는 인간 개개인의 각성과 반성으로만은 종식되지 않는다.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고 현대 문명에서는 도시에 사는 시민을 가리킨다. 현대 도시의 시민은 현대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개인으로만 존재할 뿐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민운동이 절실하다. 현대 문명이 속한 시장 실패 과정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운동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은 갈수록 너무도 복잡하고 현대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원인이 너무나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인을 공동체의 시민으로 회복시키는 좋은 취지의 시민운동은 그 취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시민운동은 현대 문명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제대로 포착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영역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시민운동은 선한 운동의 차원을 넘어 인간 삶을 진정으로 혁신하는 사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민운동은 생명공동체를 향한 시민운동으로 진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각 영역에서 생명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인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오직 그때에만 인간의 미래는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희망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YWCA,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다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세계경제포럼이 2016년 1월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제시한 후, 우리사회에서도 앞으로 전개될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이슈들이 사회의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생물학적 공간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가 과연 어떠한 방식과 형식으로 우리 삶을 규정할지에 대한 예측들이 많았다.

한국YWCA연합회도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시민운동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고 준비하고자 2019년 7월부터 ‘YWCA 미래가치포럼’을 개최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미래의 것들이라고만 상상했던 일들을 ‘오늘 당장’의 현실로 만들어버렸다. 감염병 통제 전략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온라인 기반의 ‘언컨택트’ 사회를 강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세계는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이라고 쓴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역사와 문명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밝힌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이라는 발언은 이제 대명제가 되었다. 3월 22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4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활방역은 코로나19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국YWCA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코로나19가 촉발시킨 사회 변화 속에서 활동 방식 등을 고민하며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단체로서 한국YWCA의 역할

한국YWCA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목적으로 전국 53개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22년 태동부터 한국YWCA의 눈은 여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약자에게 향하고 있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YWCA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곳은 소외계층,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 등장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연합회는 2월 18일 대구 확진자 발생 후 대구·경북지역에서 폭발적으로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현장 한가운데 있는 대구YWCA 활동을 위해 우선 300만 원을 긴급지원했다. 연합회뿐 아니라 전국 회원YWCA에서 대구YWCA 활동을 격려하고 대구와 대구시민을 응원하기 위해 후원금과 손 소독제, 면 마스크 등을 전달했다.

대구YWCA는 코로나 대응팀을 꾸려 전국에서 보내온 후원금으로 일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53개 YWCA가 함께 하니 힘내세요”라는 응원메시지가 담긴 선물꾸러미를

보건소, 병원, 생활치료센터, 소방안전본부, 심리지원단 등에 보내고 코로나19로 더욱 상황이 어려워진 장애인지역공동체, 백혈병소아암협회, 노인돌봄기관, 아동양육시설, 공부방, YWCA 돌봄 회원 등에게 필요한 물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회원YWCA는 대구 지원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3월부터 광양, 광주, 김해, 목포, 서울, 속초, 순천, 세종, 여수, 울산, 제천, 천안, 춘천, 통영, 포항YWCA는 도시락, 마스크, 생필품 등을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또한 남원, 마산, 서귀포, 서울, 세종, 원주, 인천, 제주, 천안, 청주, 충주, 포항YWCA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방에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상황실 근무자들을 위한 간식과 도시락 등을 전달하며 이들을 응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회원YWCA 코로나19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나눔활동(고양Y), 코로나19 시스터리포트 카드뉴스 홍보, 회원기도운동(서울Y), 코로나19 재난재해 봉사활동(세종Y), 코로나19 위기 극복 현안 우선지원사업(광주Y), 수제 면 마스크 나누기 운동(군산Y), 코로나19 희망나눔운동, 코로나19 지역업체 살리기(대구Y) 등 당장 어려움을 처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서울YWCA와 연합회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운동(서울Y회원기도운동/한국Y정오기도)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한국YWCA연합회는 대구·경북지역에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 지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들을 응원하고자 'YWCA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3. 2)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코로나19, 함께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고 계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께 깊이 감사드립니다'(2020. 3. 4)라는 현수막을 제작해 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회원YWCA에서 회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YWCA 애프터유 캠페인'(3. 6)을 시작해 마스크 구매 대란 속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료진들과 돌봄노동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등에게 마스크를 양보하고 이웃을 배려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했다. 온라인으로 전개한 'YWCA 애프터유(After You)' 캠페인이 소셜네트워킹의 해시태그 응원을 넘어 직접 마스크를 기부하는 실천으로 확산되면서, 'YWCA 애프터유 캠페인 참여 편'(3. 11)을 후속 제작해 마스크 5부제 실시 이후 마스크 한 장은 '먼저' 이웃과 나누겠다는 실천 사항을 제안했다. 한국YWCA연합회의 일련의 이러한 활동들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연대의 힘을 믿고,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시민사회 공동체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전개되었다.

‘언컨택트’와 YWCA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은 최대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접촉,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면서 컨택트 기반의 삶의 양상이 언컨택트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전에 비정상적인(예외적인) 것으로 생각되던 일들이 이제 새로운 규범, 즉 상식적인 현상들로 변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뉴 노멀'은 학교, 직장, 가정, 교회, 일상모임 등에서 겪게 되는 새로운 방식들로 '뉴 노멀 시대'를 직접 경험하도록 한다. 습관적인 삶의 방식이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가치관, 관습 등에 대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점검해보는 시점이기도 하다.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활동방식도 코로나19로 방식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월 20일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한국YWCA연합회는 2월 초 실시 예정이었던 전국 53개 회원YWCA 대표들이 참석하는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를 사상 초유로 연기하고 이후 긴급 안전을 서면으로 결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면으

로만 진행되었던 회장·부회장 선출, 명예연합 인준 등 인선 과정의 진행방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가져온 전지구적인 위험의 불확실성 속에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익히 잘 알고 있는 길 사이에서 제3의 절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우리의 과제이다.

3월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달로, 학교, 직장 그리고 시민단체도 새롭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코

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개학은 연기되었고 직장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무기한 휴직을 권고하거나 문을 닫는 사업장도 속출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펼치는 운동,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으로 활동방식을 전환했다. 아래 표는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한국YWCA연합회 부서의 활동 내용이다.

표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YWCA연합회가 주관하는 운동, 교육, 회의방식이 대부분 온라인 매체

<한국YWCA연합회 주요 활동 내용(3월~6월 초)>

법인사무국	중점운동국	정책기획국	회원Y재구조화지원팀
연합회 정기총회 서면결의(3.2~5)	제21대 총선 대응 YWCA 온라인 캠페인(2.26~3.4)	온라인 Y-틴 중앙임원회의(3.13)	회원Y 재구조화 지원 유선 컨설팅 및 교육, 상담
제1차 온라인 사무총장 확대운영위원회(4.1)	YWCA 온라인 사순절 캠페인(2.26~4.11)	온라인 키다리학교 실무자 화상회의(4.2)	부속시설 신운영정책 이행 지원 유선 컨설팅 및 교육, 상담
온라인 임원회 (3.12, 6.5)	3.8세계여성의날 기념 YWCA 검은목요일 온라인 캠페인(3.5)	온라인 Y-틴 대표간사회의 (4.16~5.27/ 총 5회)	<YWCA 재구조화 5개년 종합계획> 교육동영상
온라인 직원회의 (4.24, 5.11, 6.1)	1차 온라인 YWCA 애프터유 캠페인(3.6~)	온라인 키다리학교 연구 TF회의(4.13~5.15/ 총 3회)	<YWCA 부속시설 신운영 정책 이해> 교육동영상
온라인비상실행위원회 (5.14)	후쿠시마 9주기 탈핵 불의날 온라인 캠페인(3.10)	온라인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4.25)	
온라인 광역별 사무총장협의회 (5.22~6.4/ 총 10회)	2차 온라인 YWCA 애프터유 실천 캠페인 (3.11~)	YWCA 기록물 기록관리 온라인교육(5.18)	
온라인 민들레넷회원관리 프로그램교육(5.29)	제21대 총선 유권자 온라인 캠페인(4.7~14)	씽크머니 및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 온라인 실무협의회의(5.6, 5.27)	
온라인 민들레넷회계관리 프로그램교육(6.4)	2020 동일임금의 날 댄스챌린지 온라인 캠페인 (5.6~13)	YWCA 금융·경제교육 온라인 강사교육 (5.7~9, 5.27~29)	
	2020 동일임금의 날 온라인 워크숍(5.13)	온라인 대학·청년Y 임원회의	

를 활용하거나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 활동은 각 이슈에 대한 시민 참여와 역량을 모으는 것이 핵심이기에 시민들을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코로나19는 접촉을 차단시켜 버렸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YWCA 활동 영역을 넓히고 활동방식도 온라인 캠페인, 온라인 교육 등으로 전환했다. 각종 회의도 화상회의로 변경되었다. 컨택트에서 언컨택트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민운동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일반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이후 일정 분기점을 넘어서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코로나19는 온라인 활동의 분기점을 넘어서게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또다른 감염병 팬데믹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위험 사회에서 온·오프라인의 동시다발적 시민운동 전개뿐 아니라 시민운동 내용과 담론 확산의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변화를 향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삶의 양식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현상으로 드러나는 변화들, 변화된 삶의 방식을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도 시민단체, YWCA의 역할이다. YWCA의 역사가 그러했다. 1922년 창립부터 억압받는 여성의 삶을 직접적으로 돌보면서도 조혼, 공창, 축첩 제도 개선을 외쳤고, 가족법 개정을 이끌었으며, 여성인력 개발센터 사업을 개발하고 노동부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했다. 여전한 남녀 임금 격차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성범죄 관련 법 제개정 추구를 이어가고 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탈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빈발하는 신종 감염병의 등장 추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일회성이 아닌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다고 본다. 신종 바이러스 등장 빈도가 증가하는 이유로 도시화, 세계화 및 기후온난화를 말한다.

대규모 감염병과 기후변화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보고는 꾸준히 있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는 오늘날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시스템, 가치관, 양식 등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YWCA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탈핵생명운동을 전개한 한국YWCA연합회는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라는 기후위기 대응활동으로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YWCA는 그동안 탈핵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사회를 추구해왔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의 에너지 전환과 맥을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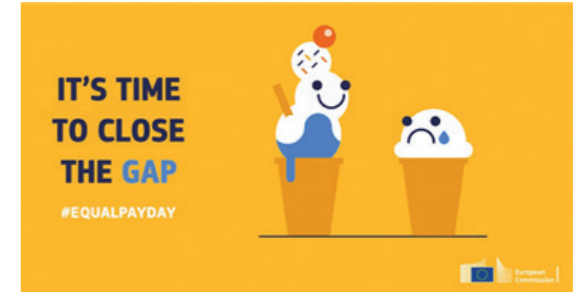
코로나19 위기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인간의 자연 파괴적인 행동이 잠시 멈추며 역설적으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다.자연은 이미 우리에게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2015.12.12)의 지구온도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은 인간과 자연을 무자비하게 착취하여 이윤을 내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청한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수많은 생명이 절규한다. 정당한 노동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용 노동자, 택배기사, 수많은 자영업자 그리고 돌봄노동자 등 이들은 5G가 선사하는 초고속 비대면 사회로도 ‘들어올 수 없는’ 이들로 이 시대 소외된 이웃이며, 생태계 파괴로 신음하는 자연도 우리가 돌보고 지켜야 할 고통받는 이웃이다. 코로나19는 누가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YWCA가 이러한 소리에 응답하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다. 

남녀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와 동일임금의 날 운동

김은경

연합회 실행위원, 성평등위원장



20대 국회의 성과

4월 30일 오후 12:42

“신용현 : 오늘 새벽 국회에서 동일임금 관련해서 양성평등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양성평등주간에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하고 그날 정부가 임금격차 등을 발표하도록 되었습니다. 원래 원했던 임금격차에 해당하는 날짜를 변동형 동일임금의 날로 제정하는 것을 관철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될 즈음, 국회의원 4년의 임기 동안 ‘동일임금의날 제정’을 위한 입법활동과 시민사회 운동을 지원해 준 신용현 의원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무척이나 반갑고 감사한 문자임에 틀림없었다.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다소 무겁게 담겨 있었다. 한 걸음, 하지만 큰 걸음을 내딛었지만 이제 비로소 시작이란 생각이 들었다. 시작이 반이라면 이미 반을 달려온 셈이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이 들었다.

2014년 이후 Y를 비롯한 범여성계, 각 분야 전문가, 노조, 정책연구소 등 관련 기관, 청소년, 청년 단체까지 참여하여 여성 임금 차별에 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정책 수립을 목표로 토론회와 세미나, 정책 간담회, 거리 캠페인, 소녀들을 위한 EPD(Equal Pay Day), 국회의원들을 향한 퍼포먼스 ‘8월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입법 청원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

든 활동을 이어왔다. 시작은 이렇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성된 국회의원 여성아동미래비전전문위원회를 통해 동일임금의 날 제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토대로, 2013년 11월 4일 강창희 의원 (대표발의) 등 125인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12월 17일, 제321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제2차)가 개최되어 법안 심사가 이루어진다.

의안번호 제746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경시, 직종 차별, 경력단절, 저임금 및 비정규직 노동 등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다양한 불평등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별임금격차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매년 5월 넷째주 고용평등 주간에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을 기념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에서의 여성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신설).

개정안은,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바람직하며, 의의가 있고, 도움이 될 것이며, 관련 사업의 법적, 재정적 근거를 가지게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들과 행정부 관료들이 모여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 (환경노동소위)에서는 ‘잘 모르겠고’, ‘마음에 안 들고’, ‘형식수설이었고 (이중

훈 위원; 양성평등의 날 뭐 이런 것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오늘 알았고'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오늘 알았거든요, 이런 법안이 있는 것 자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결국 다음 회기로 넘겨지고 (소위원장 김성태; 충분히 앞으로 검토하세요), 19대 국회는 그렇게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고용상 남녀간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일 임금의 날'을 제정. 기념하는 내용으로,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자"하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남녀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지는 목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기념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바람직하며, 비교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처럼 특정한 법적·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날(일)"을 지정하는 것은 다음 표와 같이 그 유례가 있는 것으로서 "동일 임금의 날"을 신규로 제정하여 기념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으며, 법 제6조의2제2항제3호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의 정착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5월 말에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을 정하고 기념행사, 세미나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며 남녀고용평등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개정안에 따라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나름의 의의가 있다.
-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2020년 4월, 20대 국회를 통해 '양성평등임금의날'로 결실을 맺은 동일임금의날 제정 운동은 한 고비를 넘었으나 여전히 쉽지 않은 환경에 직면해 있다. '노동시장의 견고한 직종분리', '부적절한 일·생활 균형 정책과 이로 인한 성고정관념 강화', '투명성 결여가 초래하는 차별' 등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

같은 문제, 다른 답

우르슬라 폰데어라인 EU집행위원장은 '2019-2024' 정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경제(An economy that works for people)를 목표로,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와 돌봄 책임자들을 지원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도울 여성과 남성의 책임 분담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8가지 구체적인 활동을 제안했다.

- ① 동일임금원칙의 적용 강화
- ② 직종분리 완화 및 제거
- ③ 유리천장 깨기: 수직적 직종분리 제거 조치
- ④ 돌봄 노동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
- ⑤ 여성의 기술, 노력과 책임에 대한 인정
- ⑥ 차별과 고정관념 드러내기
- ⑦ 임금차별에 관한 정보제공 및 경각심 고취
- ⑧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력관계 구축

이것이 신임 위원장이 밝힌 새로운 유럽성평등전략(New European Gender Strategy)의 기본원칙이며, 임기 초반 최우선적으로 '여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내리는 결정들 즉, 일을 시작하고, 기업을 이끌고, 임금을 받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연금을 관리하는 데 미치는 법의 영향력에 대하여 강조할 계획'이라 밝혔다. 유럽 연합을 비롯하여 임금격차 해소에 박차를 가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각국의 사례들은, 10년 넘게 30%대 격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왜'라는 질문과 함께 다가온 시선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 국제 사회의 관련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사회의 심각한 남녀임금격차는 왜 제자리 걸음인가? 차별임금을 받는 딸을 둔 아빠들과 일생활 균형에 지쳐버린 아내를 둔 남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관련 법과 제도, 해결을 바라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도대체 왜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답을 할 차례이다.

2020년, 53개 회원Y가 서둘러 시작할 수 있는 '실천 행동' 3가지를 생각해 보았다.¹⁾ 첫째, 민간기업에 앞서 공공부문에 서 모범을 보이도록 요구하는 일이다. 서울시는 성평등 기본 조례를 통해 공기업 대상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실시한 원년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여 서울시 산하 공기업과 서울시 소재 민간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에 있다.²⁾ 서울시 사례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적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차별임금 철폐와 동일임금 챔피언이 되겠다는 서약을 받는 일을 시도하는 것이다. 동일임금 요구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정기적인 감시를 촉구하고, 공공조달과 보조금 지급 해당 기관에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콘트롤 시스템을 도입하고, 협약 책임 이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도록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그 규모에 따라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 규모와 수십만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이른바 사용자이자 입찰자로, 또 보조금 제공자로 한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 정부는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분야의 책무를 요구하는 동일임금현장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유엔 공공서비스상 (2018 United Nations Public Service Award)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16개 주정부, 86개 코뮌, 그리고 연방 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둘째, 민간 기업에 대한 자가 평가 기준과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다. 여성과 남성의 공정임금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업들 스스로 평가하고 고용 평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가 채택한 남녀평등지침(L'index de l'égalité femmes-hommes)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이 제거 40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임금 인상의 기회 20점,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승진의 기회 15점,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사람들에 대한 임금 인상 15점, 10명의 최고임금자 중 최소 4명의 여성 10점 등' 자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

의 자율적 평가와 변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2019년 평가를 시작하여 3년의 시간을 부여하고 2022년, 총점 75점에 이르지 못한 기업에게 전체 임금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제시와 벌금 규정은 기업으로 하여금 임금평등에 대한 적극적 사고와 투명성에 기초한 문제해결의 단순함, 원칙 준수 의 강제성을 전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우리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가 평가 기준을 제공하는 일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인식조사의 필요성이다.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은 '남녀임금격차 34.1%'라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인식에 기초할 때 실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금차별 기업에 대한 패널티 벌금 부과는 여성 고용을 기피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남녀임금격차에 대한 인지 여부 (임금차이가 34.1%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와 가치 판단의 문제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금공개에 대한 찬성 여부 등을 주요 항목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일임금의날 제정, 기업 인사담당자 지원 워크숍, 임금 협상, 벌금 부과 등 단계별·순차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모색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게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고용주와 사회적 협력단체가 투명한 임금체계를 수립하도록 촉구하면서 임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의 책임을 부여했는데, 이 때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수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피용인의 권리, 임금 정보 보고, 임금 감사, 단체 교섭 등 4가지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제 진정 임금차이를 줄여야 할 시간이 되었다. 서두르자. 천천히. 

1) 정부 차원의 과제는 모집채용 차별 방지를 위한 벌칙강화, 고평법 이행 주체를 사업주에서 사용자로 확대,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국가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추진체계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확대, 가족돌봄휴직 대상범위 확대, 노동위원회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성인지 근로감독행정 강화 등을 제시한 '남녀고용평등법 실시 30주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개선과제' (한국고용정보원, 2019) 참조
2) 김남주, 이선형, 김병권, 김은경(2019), "서울시 성평등임금실천 가이드라인 개발" (서울시)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은 국정과제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국내외적으로 가장 취약한 임금차별과 고용상차별

한국은 1991년 UN가입으로 ILO 회원국이 되었다. ILO 회원국으로서 한국은 ILO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조약(The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ILO 협약 제100호, 1951년 6월 6일 제34차 채택)에 1997년 12월 비준하였다. 동일가치 동일보수 조약뿐만 아니라 ILO의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금지조약」(ILO 협약 제111호, 1958년 6월 4일 제42차 총회 채택)에는 1998년 한국은 비준하였다.

ILO 협약의 비준에 앞서 10년 전부터 우리 정부는 국내법을 통해 임금차별 및 고용상 차별 금지를 보장하였다. 1987년 신규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이유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업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2년 뒤 1989년 개정에서는 ‘①남녀 차별의 정의를 명문화함. ②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등을 명시하여 고용상 남녀 차별 금지와 임금 차별 금지를 공고히 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제8조와 제9조의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뿐만 아니라 제7조의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차별금지, 제10조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를 규정하여 직접적인 임금 차별뿐만 아니라 모집·채용,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남녀 차별로 임금 차별이 유발되는 것을 법으로 차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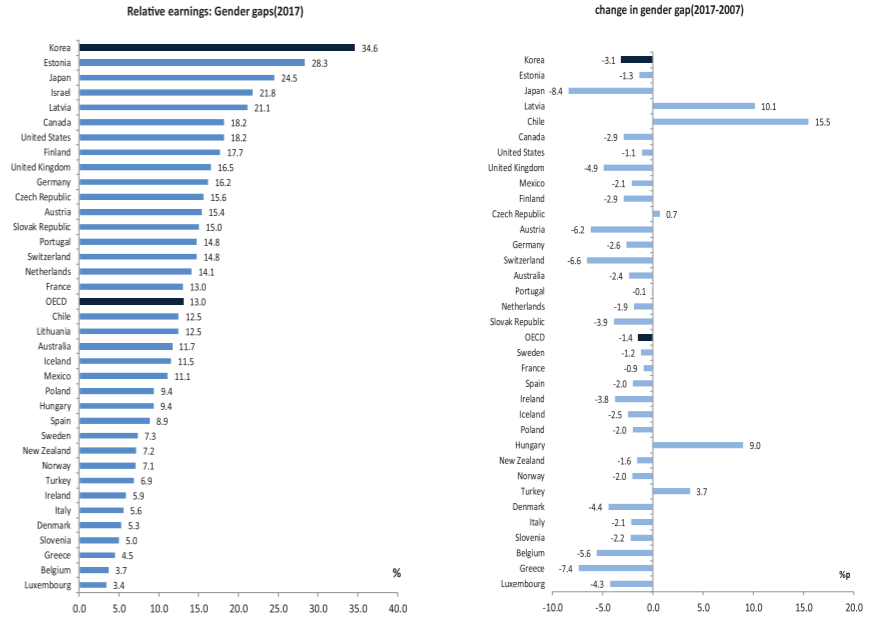
「남녀고용평등법」제정과 ILO 100호, 111호 기준을 통해서도 한국은 국가대외적으로 임금 차별과 고용상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이지만 성별 임금 격차는 한국이 국내외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한국, OECD 성별 임금 격차 최하위

OECD는 2007년부터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OECD가 2007년부터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가 가장 작은 국가는 해마다 변동

OECD 국가 성별 임금 격차 (2017년)

주: The gender wage gap is unadjusted and is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median earnings of men and women relative to median earnings of men.
자료: OECD(2019), 「2019 OECD Employment outlook」 재구성



이 있으나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가 가장 큰 국가는 변동 없이 한국이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다.

임금은 임금 자체 차별 뿐만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의 모든 속성이 결합된 결과이다. ILO는 2013년 「Equal Pay Guideline」³⁾을 통해서 임금 결정 요인을 설명되는 속성과 설명되지 않는 속성으로 구분하였다. ILO(2013)는 교육과 훈련에서의 성별 차이(difference), 근속년수에서의 성별 차이(difference), 성별 직종 분리, 전일제 노동 성별 차이, 종사 기업규모의 성별 차이, 노동조합 가입 성별 차이는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시키는 설명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ILO(2013)는 성별 임금 격차 유발의 마지막으로 지적한 요인은 설명되지 않는 요인으로 임금 차별(pay discrimination)이다.

필자는 한국 YWCA와 함께 ILO(2013)에서 지적한 성별 임금 격차 요인을 한국 통계를 활용하여 2015년부터 분석할

기회가 있었다.⁴⁾

2015년 분석한 2014년 시간당 임금 격차는 6,084원이 고 이 중 임금 차별(pay discrimination)이 차지하는 금액은 3,685원으로 60.6%를 차지하였다. 2015년 이후 임금 차이는 감소하였으나 임금 차별(pay discrimination)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까지 상승하여 2018년 성별 임금 격차 5,085원 중 임금 차별(pay discrimination)이 차지하는 비율은 66.8%이다. 2020년 분석한 2019년은 최근 처음으로 성별 임금 격차와 임금 차별이 차지하는 비율이 동시에 좁혀진 결과를 보였으나 전체 성별 임금 격차에서 임금 차별(pay discrimination)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인 것은 변함이 없다.

한국내 성별 임금 격차에서 임금 차별(pay discrimination)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인 상황이 개선이 없는 것과 동시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성별 임금 격차가 30%를 상회하

1) 남녀고용평등법은 2008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 법」으로 개정됨. 본 지면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통칭함.

2)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노동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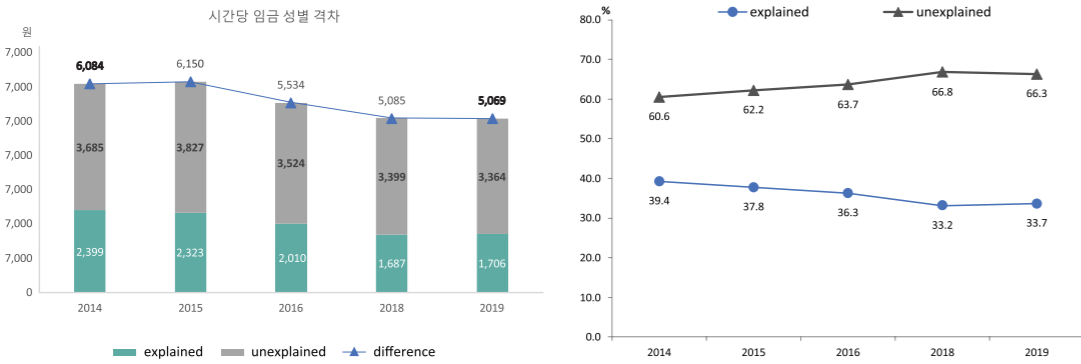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노동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Martin Oelz, Shauna Olney, Manuela Tomei(2013), 「Equal Pay Guideline」, ILO.

4) 분석 시점의 분석 자료는 전년도 통계를 활용하여 2015년 분석은 2014년 통계 자료, 2020년 분석은 2019년 통계 자료이다. 분석 방법은 Oaxaca-Blinder의 임금 격차의 분해(decomposition)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도별 시간당 성별 임금 차이와 차이 요인별 분해



분석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자료 : 김난주(2020), 「한국의 성별임금 격차 현황과 시사점」, 한국YWCA 2020년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온라인실무자워크숍(2020.5.13)

는 국가이다.⁵⁾

성별 임금 공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치는 미흡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20대 국정전략에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선언하고 실천과제에서 64번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세부과제로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해소 추진을 명시하였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여성일자리대책에서 '성별 임금격차 정보공개 및 개선의무 부과'를 발표하였다. 성별 임금 공개는 한국보다 성별 임금 격차가 작은 선진국에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국가문제로 인식하고 임금 격차 해소를 국정과제로 명시했으나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의 임금 정보 수집이 추진되고 있을 뿐 성별 임금 공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치는 미흡하다.

중앙정부의 성별 임금 공시제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는 서울시가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2019.7.18.)를 통해 '성평등임금 공시제' 실시를 정식 공표하고 2019년 12월 결과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

째로 고양시가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일명 '페이미투' 조례)를 2020년 5월 8일 통과시켰다.

한국YWCA가 주도적으로 전개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운동

성평등 임금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인식 개선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충분 조건일 수 있다. 한국YWCA가 주도적으로 전개해 온 동일임금의 날 제정이 20대 국회 막바지 2020년 4월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제38조 제3항 신설)이 통과된 것도 중요하다.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과 대화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것을 감명 깊게 봤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 국가다. 평균 임금은 남성 7700만원, 여성 480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너무 암울하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자신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말한 여중생의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이다.

5) OECD(2019), 「2019 OECD Employment outlook」 발표, 2017년 성별 임금 격차에서 한국은 34.6%로 35개 국 중 최하위이며 한국 다음은 에스토니아로 28.3%이다. 2017년 OECD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3%이고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3.4%에 불과하다.

2020 동일임금의 날 기념 'YWCA 댄스챌린지 온라인 캠페인' #성별 임금격차 해결하라!

편집실

5월 6일 2020년 동일임금의 날

한국YWCA연합회는 5월 6일을 2020년 동일임금의 날로 선포하고, 5월 6일(수)부터 13일(수)까지 일주일 동안 동일임금의 날 기념 'YWCA 댄스챌린지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회원YWCA와 부속시설 27곳(거제, 남양주, 대전, 동해, 마산, 목포, 서귀포, 세종(교육협동조합, 빵빵이극단 교육연구센터), 수원, 순천, 울산, 의정부, 익산, 인천, 전주, 진주, 진해, 창원, 천안, 청주, 춘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충주, 파주, 포

항, 하남)이 참여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등 SNS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결을 요구하는 자유로운 퍼포먼스와 함께 '#성별 임금격차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동일임금의 날'은 성평등 증진을 통한 공동체 발전의 핵심적인 실천 방안으로, 한국YWCA는 '성별을 이유로 임금격차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2014년부터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2020년 4월, 20대 국회를 통해 '양성평등임금의날'로 결실을 맺었다.

<YWCA 동일임금의 날 운동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014. 5. 26(월)	2014 동일임금의 날 제정토론회- 왜 '동일임금의 날'인가? (연합회 후원, 김은경 위원장 발제, 유성희 연합회 상임이사 토론)
2014.(연중)	빨강가방 들기 캠페인
2015. 5. 23(토)	2015 동일임금의 날 정책 워크숍- 남녀동일임금, 어떻게 이를 것인가? (연합회 공동주최, 김은경 위원장 진행)
2016. 5. 23(월)	2016 동일임금의 날 정책 토론회- 한국동일임금의 날, 무엇을 할 것인가? (연합회 공동주최, 김은경 위원장 발제, 박은실 연합회 국장 토론) - 9월: 대구YWCA, 서울YWCA, 여수YWCA, 창원YWCA와 함께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면담, 동일임금의날 제정 촉구와 제도 개선 과제 제안
2016 5. 23(월) ~ 27(금)	2016 YWCA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 5월: 전국 14개 회원 YWCA 본부 단독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공공으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거리캠페인 전개
2017. 5. 23(화)	2017 동일임금의 날 정책 토론회-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연합회 공동주최, 원영희 연합회 부회장·김은경 위원장 토론)
2017. 5	2017 YWCA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 5월: 동일임금의날 전후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32개 회원 YWCA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공공으로 고용평등주간에 대중인식 제고 캠페인
2018. 5. 23(수)	2018 동일임금의 날 기념 좌담회- 임금차별은 불법이다! (연합회 공동주최, 김은경 위원장 진행, 배정미 연합회 운동국장 대담) - 임금차별에 대한 불법성을 주장하며 문제해결 당사자인 청년여성과 여성노동자, 취업기관 관계자와 국회의원, 관련 정부 부처, 전문가들이 모여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 계획 논의
2018. 5	2018 YWCA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 5월: 28개 회원YWCA 참여로 고용평등주간 '#페이미투 운동' 전개
2018. 10. 5(금)	'동일임금의 날 제정'에 관한 입법 청원
2019. 5. 22(수)	2019 남녀동일임금의 날 토론회- 여성임금차별 실태와 해소 방안 (연합회 공동주최·주관, 김은경 위원장 진행, 김예지 연합회 대학·청년회원 토론) - 5월: 21개 회원YWCA 참여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캠페인
2020. 5. 6(수) ~ 13(수)	2020 YWCA 동일임금의 날 온라인 캠페인 - 5월: 27개 회원YWCA 동일임금의날 댄스 챌린지 유튜브 영상 제작
2020. 5. 13(수)	동일임금의 날 실무자 온라인 워크숍 5월 13일(수)



①거제YWCA ②남양주YWCA ③대전YWCA ④동해YWCA ⑤동해YWCA ⑥마산YWCA ⑦목포YWCA ⑧서귀포YWCA ⑨세종YWCA
⑩세종YWCA ⑪수원YWCA ⑫순천YWCA ⑬울산YWCA ⑭의정부YWCA

①익산YWCA ②인천YWCA ③진주YWCA ④전주YWCA ⑤진해YWCA ⑥창원YWCA ⑦천안YWCA ⑧청주YWCA ⑨춘천YWCA ⑩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⑪충주YWCA ⑫하남YWCA ⑬파주YWCA ⑭포항YWCA

탈핵반대 가짜뉴스 팩트체크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요즘엔 되레 '탈핵반대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흔히 불공정보도의 유형은 목살, 은폐, 과장과 축소, 악의적 왜곡, 양비론, 미확인 보도, 보도 태도의 이중성, 편파적 용어사용·장면제시, 특정구절만 인용보도 등 다양하다. 가짜뉴스는 기자의 확인 소홀이나 한쪽 의견의 일방적 전달 등 전문성 결여, 언론사의 편향적 시각이나 상업주의와 같은 구조적인 면, 이해관계에 따른 오보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의심이 되는 뉴스는 다른 언론사 보도나 환경시민단체의 홈페이지를 보고 크로스체크하거나, 탈핵 서적이나 자료로 자기판단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가짜뉴스와 팩트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1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제왕적 조치'인가?

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은 대선을 통해 이미 사회적 합의를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탈원전정책으로 국민안전과 환경권을 지키겠다'며 모든 신규원전 건설 계획의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금지 및 월성1호기 폐쇄, 단계적으로 원전감축·원전제로시대로 이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이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느린 탈원전정책'이다. 2023년까지 신규원전 5기 건설로 총 7GW(원전 7기 해당) 증가하고, 신고리5·6호기는 2080년대 초까지 가동 예정이다.

#2 원전 줄이고 석탄발전 늘렸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었다?

2018년 한해 석탄발전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43.7%에서 42.4%로 줄었고, 이 시기 원자력 비중도 27.5%에서 23.4%로 내려갔다.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에는 23%까지 내려간다. 석탄발전으로 생긴 미세먼지도 2016년 1분기 7951톤에서 2017년엔 7746톤, 2018년엔 6521톤으로 줄어들었다. 탈원전과 탈석탄화로 미세먼지가 더 줄어든다는 것이 팩트이다

(JTBC, 2019.1.14).

#3 탈원전으로 전력대란이 온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사실 신고리 5·6호기가 없어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 2011년 9월 11일 전국이 블랙아웃(대정전) 직전까지 간 것은 최소 공급예비율(약 5%)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였다. 2013년 8월 19일 예비 전력이 405만kW(예비율 5.46%)였을 때도 전력수급에는 지장이 없었다. 2020년 6월 2일 10시 현재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을 보면 공급예비력이 3,283만kW(공급예비율 53.42%)로 전력생산설비 절반 이상이 남아돌고 있다. 고리1호기는 설비용량 59만kW로 국내 전력량의 0.73%에 불과했다.

#4 전력수요가 급증한다?

2030년 예상 전력수요는 박근혜 정부 당시 112.2GW였으나 문 정부 들어 추산한 결과 101.1GW로 원전 8기 용량(11.3GW)이 줄어들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2.5% 정도를 가정한 것인데 향후 인구감소나 에너지효율화로 전력수요 급증 가능성은 적다. 환경단체는 오히려 목표치를 95GW로 더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7.13).

#5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다?

야당의 한 의원이 "탈원전하면 전기요금이 2030년에는 2016년 대비 가구당 월 2만6000원 오른다"고 했으나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결과 이는 전기요금 자연증가분을 포함한 것으로 탈원전·석탄 전환 시 추가비용은 월 5,2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국내 전기요금이 약 48% 올랐다(동아일보, 2013.11.20).

#6 탈원전 때문에 원전수출도 안된다?

2009년 UAE 원전 건설공사 수주는 프랑스 업체 입찰가의 절반 수준인 186억 달러의 저가입찰이었다. 그 후로는 한국형 APR1400에 대한 스위스업체의 지적재산권 주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현 도시바)의 원자로 냉각펌프 등에 대한 지적소유권 주장으로 한국 단독수주가 쉽지 않다. 지금 세계는 수출원전 사고발생 시 수출국 부담, 건설가동비용의 수출국 금융지원, 사용후핵연료처분 책임 등으로 러시아·중국 외엔 원전수출이 어렵다. 일본도 수십년 간 국가적으로 총력을 다해왔던 원전수출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7 중국 등 원전건설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후퇴하고 있다?

원전은 사양산업이다. 세계원전동향보고서(WNISR) 2019년판을 보면 전 세계 원전 신규건설은 2018년 5기, 2019년 1기에 불과하다. 40년 수명의 세계 원전은 2065년에 제로가 된다. 2009년-2018년의 발전단가를 보면 원전은 MWh 당 123달러에서 151달러로 상승한 반면, 태양광은 359달러에서 43달러, 풍력은 135달러에서 42달러로 급감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원전시설이 41GW 늘었다면 태양광은 487GW, 풍력은 547GW로 10배 이상 늘었고, 중국도 그간 43GW의 원전설비가 증가한 데 비해 태양광 175GW, 풍력 185GW로 재생가능에너지가 4배 이상 늘어났다.

#8 멸종한 월성1호기를 폐쇄한 것은 잘못이다?

월성1호기는 2012년 30년 설계수명이 끝나는데 허가도 받지 않고 7000억원(실제 5383억원)을 투입해 노후기기를 일방 교체한 데 대해 국민소송이 제기돼 위법판결이 났다. 결정하면 고장으로 정지하는 바람에 월성1호기 이용률이 2017년에는 40.6%까지 내려왔다. 실제로 90% 이상 가동해도 적자이며 발전단가(120원/kWh)가 다른 원전 평균단가보다 2배 높아 연평균 1천억 원 연속적자를 기록했다. 가동할수록 손해이기에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맞춰 한수원 이사회가 폐로를 결정한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었다.

#9 태양광, 풍력발전이 오히려 환경파괴 주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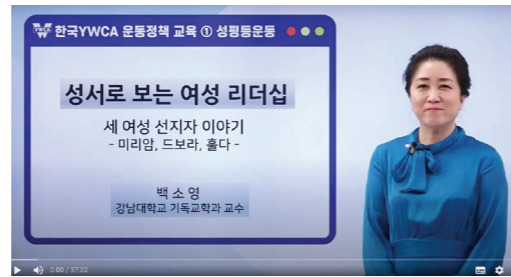
'태양광패널, 300배 이상 독성'이란 가짜뉴스는 미국의 '환경진보'라는 친핵단체가 근거 없이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국내 보수언론이 보도하고, 야당의원이 국회서 질의하면서 지역주민의 반발과 SNS 가짜뉴스 확산으로 증폭된 사례이다. 태양광발전협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패널은 중금속과 전혀 관계가 없다. 태양광패널의 전자파는 노트북 150분의 1이고, 패널의 반사율은 흰색페인트보다 낮다. 물 세척이면 충분하고, 태양광패널 사용 연한은 25-30년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가중치 0.7-1로 변경해 산림훼손 우려가 있는 임야태양광이 급증했으나 문 정부 때 원상복구를 했다. 풍력발전기의 일반소음은 40데시벨 수준으로 주거지 사업장 및 공장 생활소음규제(주간 55dB, 야간 45dB)보다 낮은 수준이며, 풍력발전의 저주파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풍력발전으로 인한 야생조류 치사율은 빌딩, 송신탑보다 낮다.

세계는 지금 탈핵에너지전환 시대이다. 에너지전환은 마인드 전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연생태를 존중하고 기후 위기를 인식하는 세계시민의식을 키우고, 친환경 에너지절약 생활을 실천하고 네트워크화하며,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통해 법과 행정, 제도를 제대로 만들으로써 이러한 법과 제도가 다시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 시대의 페미니즘을 읽다

백소영

강남대 기독교학과 교수



여성운동의 범주를 총괄하는

대표적 개념어 페미니즘

최근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팎으로 전개되는 페미니즘의 확산을 보며 기독교 지인들은 내게 묻는다. “예수께서는 의인/죄인의 구도를 허무시고 유대인/이방인의 배타적 이분법도 넘어 ‘그리스도의 제자’인 관계적 혁명을 이루셨는데 왜 페미니즘이냐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들은 2016년 한 복음적인 선교 단체의 여성 간사들을 중심으로 출발한 ‘갓페미’나 강남역 살인사건을 보며 각성한 크리스천 여성들이 온라인을 베이스로 결성한 ‘믿는 페미’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예수님 잘 믿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편견과 불평등은 사라질 텐데 ‘세상적 사상’인 페미니즘을 신앙에 접목시키려느냐, 또 수년간 문화적 정서 일 반에 ‘메갈/위파드=페미=남성혐오/여성우월’의 도식이 자리 잡은 마당에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꼭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묻는다.

그 모든 오해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지난 한 세기 여성운동의 다양한 범주들을 총괄하는 대표적 개념어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적 신앙’과 만날 수 있다. ‘페미니즘’이란 단어는 글자 그대로 ‘여성’과 ‘사상’의 복합어이다. 그러니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여성들의 주장을 체계화한 이론’인 셈이다. 그렇다고 모든 여성들의 말을 다 ‘페미니즘’의 우산 안에서 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인류 문명은 ‘성인 남자’가 공동체 안에서 공적 권위를 독점하는 ‘가부장제’로 산 지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그 제도를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 제도 안에서의 여성 배치에 순응한 여성(‘거세된 여성’)이나 이에 불만을 품고 남성과 같아지려는 여성(‘명예 남성’)의 주장은 보통 페미니즘의 원천자료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둘 다 가부장제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 성(性)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한 개체 생명이 가진 마음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생명은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유일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익히고 깨닫고 꿈꾸는 것들을 마음에 담아 나타내는 성향이 ‘성(性)’이다. 그런데 이 성을 소위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하여 ‘고정된’ 역할 분담을 나누어온 제도(가부장제)의 역사가 무려 5천 년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초의 남자와 여자가 ‘다른 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염색체상으로 엄연히 다른 X인자와 Y인자를 거부하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성의 구별만으로 자유의지와 창조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있는 생명의 ‘마음의 성향’을 제한하여 통제할 수는 없다. 어쩌면 그야말로 가장 반(反)하나님적이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독교 선배들은 가부장제의 전제들

과 하나님의 보편 계시를 ‘버무려서’ 전해주었다. 여자의 영혼은 남자의 영혼보다 2배나 늦게 도래한다든가, 여자는 남자보다 신앙이 더 부족하기에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말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을까? “살아라, 그리고 비난 받아라.” 2세기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의 여성에 대한 저주가 ‘전통’의 이름으로 교회 주변을 맴돈다. 종교개혁 이후 성경을 다시 읽은 남성들은 여성은 남성과 ‘다를’ 뿐이지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상보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도하고 쟁취하는 남성성과 격려하고 보조하는 여성성이 서로 도우며 함께 협력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말이다. 그러나 ‘성경적 여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일, 공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여자로 태어났다면 현숙한 내조자요 어머니로서의 ‘운명’이 주어졌다는 주장이다. 진실보했으나 ‘여성’을 운명적으로 제한하기는 매한가지이다.

19세기 말 근대 유럽에서 등장한 첫 번째 페미니즘이 이런 근대/개신교 여성 담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나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태어난 생명을 신분과 성으로 나누어 제한했던 전근대 사회에 도전하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외치며 탄생한 사회가 근대(modern) 사회이다. 그런데 ‘평등’을 외치며 차별을 무화시키던 남자들이, 유독 성차별만큼은 ‘다름’을 앞장세워 유지하고자 했다. ‘존재론적으로는 평등하나 기능적으로는 위계적’이라는 개신교적 성 이해는 근대인이요 기독교인이었던 시민 남자들의 열망에 종교적 정당성을 주었다. 하지만 ‘만인의 평등’을 전제로 건설된 사회인데, 어찌 인종과 피부색을 넘어 성별 앞에서 평등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까.


하나님의 보편 계시는 페미니스트적 시각을 포함하는 것

페미니즘은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 여자를 ‘여성’이 아닌 ‘사람’으로 응시하라는 요청이다. 현 제도 안에서 법적으로 쟁취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자유주의 페미니스트요, 여성들끼리 제도를 다시 짜보겠다는 이들이 급진적 페미니스트이다. 소위 ‘영페미’라고 불리는 10~30대 여성들은 주로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전근대, 근대, 후기근대 사회를 반세기 안에 겪으면서 생겨난 삶과 문화의 불일치가 가장 큰 이유이다. 후기근대인인 그들은 능력에 따라 성장했지 ‘여성’으로 교육받지 않았는데, 정작 가정과 사회는 ‘아직도’ 근현대 가부장제의 틀로 여성을 바라보고, 전근대적 문화적 전제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여성성을 우월하다고 하거나 남성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방식으로 대안적 제도를 모색하는 것은 ‘페미니즘’일 수는 있어도, 기독교적일 수는 없다고 본다. 페미니즘이 반드시 기독교적일 필요는 없으나, 기독교가 하나님의 보편 계시를 제대로 받으려면 ‘페미니스트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잃은 양 한 마리까지 ‘우리 공동체’로 데려오신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오래, 가장 광범위하게 배제되었던 이름인 ‘여성’은 여전히 대표성을 가지고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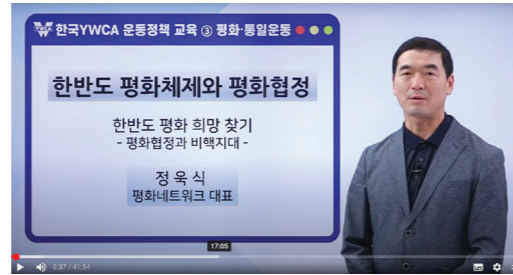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내셨다.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야 인간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을 시대가 가면 변할 제도로 위아래로 나누고 옆에 칸막이를 그어가며 나누는 것은 결코 ‘성경적’일 수 없다. 존재론적으로 평등하다면, 기능적으로도 평등해야 한다. 조직 사회에서 기능의 위계가 있으나 그것은 능력과 재능에 따른 업무 분담이지,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분법에 있지 않다. ‘나만 살자’ ‘여자만 살자’는 것이 어찌 페미니즘이겠나.

우리가 받은 두 가지 창조 명령 즉 ‘생명을 풍성하게 살 아내라!’(존재명령) 그리고 ‘연약한 생명을 살려내라!’(구원명령)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내는 기독교적 소명이 페미니즘과 만난다면, ‘살고 살리는’ 페미니즘이 가능하리라고 믿는다. “재기해” “주혁해” 그것이 제아무리 오랫동안 있어 온 여성 살해에 대한 ‘상징적 미러링’이라고 해도, 생명을 향해 죽으라고 외치는 것은 그 어떤 사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 않은가. 

한반도 평화 희망 찾기 평화협정과 비핵지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한반도 평화, 또 다시 희망고문의 위기에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로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20년이 지나고 있다. 그 사이에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 많은 부침을 겪어왔다. 2018년에는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고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열리면서 어느 때보다 평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컸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남북관계마저 악화되면서 한반도 평화가 또다시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우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데이트 폭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좋아한다", "신뢰한다", 심지어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대북 제재를 강화해왔다. 이런 트럼프에게 농락당했다고 여긴 북한은 '장기전'을 예고하면서 자력갱생 및 핵 억제력 강화를 통해 '정면돌파'를 다짐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착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계적 해법'에 집착한 것이 대표적이다.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의 협상 전략은 비핵화를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영변 핵시설 폐기→핵물질 처리→핵무기 폐기'로 나누고는 단계별로 상응조치를 받아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정도만 폐기하면서 제재 완화와 같은 상응조치를 받아내고는 핵무기는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에 힘을 실어주고 말았다. 핵무기 폐기의 시한과 방식은 협상 초기에 제시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 북한과 '단계적 군축' 추진에 합의했던 만큼 역대급 군비 증강을 자제했어야 했다. 트럼프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김정은에게 두 차례 약속했던 만큼 이를 지렛대로 삼아 연합훈련 중단을 실천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병행 발전을 추구했어야 했다. 상호 모순적인 목표들을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과 군비증강을 우선시키고 말았다. 또한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를 둘러싼 북미간의 동상이몽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한국식 해법을 만드는 데 소홀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문이 닫히고 코로나19 사태 및 미국 대선을 고려할 때, 차분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와 관련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한반도 핵문제 해법, 비핵지대화

먼저 한반도 핵문제의 해법으로 비핵지대를 삼자는 것이다. 비핵지대는 남북한이 '비핵지대 내' 당사자들로 조약을 체결하고, 미·중·러 등 공식적 핵보유국들이 '비핵지대 외' 당사자들로 이 조약에 참여하는 구도를 일컫는다. 이러한 접근이 필요한 절박한 이유는 비핵화의 정의 및 최종 상태를 둘러싼 북미간의 동상이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남·북·미는 2018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비핵화의 최종 상태는 물론, 정의 자체

에 대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는'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를 두고 헤맬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비핵지대를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로 삼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다. 더구나 비핵지대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비핵화'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다.

한반도 비핵지대의 또 다른 의미는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면서도 핵문제 해결이 막히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군비 통제, 대북 제재 해결 등이 '동시적·병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비핵화의 정의 및 목표 자체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들 문제의 진전도 가로막혀 있다. 이에 반해 비핵지대를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삼으면 이들 문제의 진전도 가능해질 수 있다.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이야말로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식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4.27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유엔은 비핵지대와 관련해 '지대 내 국가들의 자유로운 협상 결과에 기초하고 '핵보유국을 비롯한 지대 밖의 국가들도 지지·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한반도 비핵지대의 지대 내 국가들은 바로 남북한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이 비핵지대 협상에 착수하고 핵보유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또 하나의 중대한 관문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이다. 냉전 시대 가장 비극적이며 70년 가까이 '멈춘 상태'인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영구적 평화를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도

소중한 목표이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안보 증진과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평화협정을 비핵화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기면서 비핵화 완료 이후나 이와 동시에 체결하는 방안이 주로 모색되어왔다. 이제는 다른 접근을 모색할 때이다. 평화협정 자체가 당사국들이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표이자 비핵화에 결정적인 추동력을 부여할 수 있는 유력한 옵션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즉,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비핵화'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접근이 요구된다.

유념해야 할 것은 평화협정은 평화체제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이다.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의 관계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입구론'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해 평화체제를 구축해가는 방식이다. 둘째는 '출구론'으로 평화체제를 거의 완성하고 나머지 과제를 평화협정에 담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중간단계론'으로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평화체제의 일부 내용을 합의·이행하고 남은 과제를 담는 방식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8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의 일부 요소는 이미 합의되었고 남북 군사 분야 합의도 일부 이행된 상황이다. 또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평화체제의 일부 내용을 합의·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을 평화체제의 '중간단계'로 상정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북핵 해결 방안을 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문재인-김정은-트럼프 중심의 '툭다운' 방식의 문제 해결은 한계에 봉착했다. 그렇다면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한국 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캠페인'에 참여하고 한반도 핵문제 해법으로 비핵지대에 대한 관심이 가졌으면 한다. 특히 평화가 파괴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가 채택된 지 20주년을 맞이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가야 할 길

이윤숙
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시대로

근래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감염병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로 죽은 전 세계 인류의 숫자가 이미 4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 파괴적 전염 양상은 여전히 쉽게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인류를 고통과 공포에 몰아넣은 이 코로나 팬데믹은 더욱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의 예고편 중 하나라고 말한다. 코로나 이전에 발생한 에볼라나 사스 등 새롭게 발견되는 감염병의 70%가 바로 인수공통감염(人獸共通感染)이다.

이는 인간의 탐욕적인 경제활동으로 생태계가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화석연료 사용이 일으킨 기후변화로 생태환경이 급속도로 바뀌면서 발생한 현상들이다. 자본들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대규모 벌목과 경작, 채굴과 댐 건설을 하면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이로 인해 모기, 진드기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병 매개체들이 인간에게 확산하게 된다. 더구나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가뭄, 수물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목축지로 이동하게 되어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기후'의 문제를 '기후변화'라 하지 않고 '기후위기'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에 대처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이 6월 11일(목)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난 수십 년 간 꾸준히 외쳐져 왔지만, 지구온도의 상승속도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 그 결과 이제 전 세계는 해마다 더해가는 기록적인 더위와 가뭄과 산불,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태풍과 호우 등의 기상재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 더해 전염병 창궐이라는 기후 재앙의 무시무시한 결과를 맞아 속수무책인 모습들을 목도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얼마 남지 않았다

유구한 지구역사에서 인간의 산업화 활동으로 인해 지구 온도는 1.1도 이상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여야 하나,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면 불과 8년 후 지구온도의 1.5도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욱 엄청난 기후 위기 대재앙이 너무나 빨리 현실이 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지구적인 산업화 활동의 탄소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고 역설적으로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우연적 상황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일, 전환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엄중하고 고통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전 세계 곳곳의 정부와 시민사회는 사실 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제 너무나 유명해진 스웨덴 청소년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전세계 지도자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를 주도하였고 이는 전 세계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이 '청소년기후행동'을 조직하고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청소년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별종 저항' 행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번 아니라 전 세계 27개 국의 1300여개 중앙/지방 정부들이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우리나라 시민사회도 지난 9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조직하여 우리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하기를 촉구하였다.

한편 유럽의회는 앞장서서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제로(넷 제로)를 약속할 것을 촉구하였다. 영국 정부는 G7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넷 제로 법안을 제출하였고 2019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녹색산업혁명' 공약을 제시하는 등, 유럽의 각국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K-방역 성공모델, 기후약당 국가 한국

그렇다면 이런 절박한 기후위기의 현실 속 한국은 어떠한 모습인가.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K-방역의 모델이 전세계의 표준이 되었다고 자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근본 원인인 기후위기에 대응은 그 자량이 무색할 정도로 형편없다. 한국은 독일의 민간연구소 '저먼워치'가 평가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에서 61개국 중 58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2016년 영국 기후변화 전문 언론 '클라이밋웍'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 약당'에 꼽힌 것으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5억 3600만 톤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하지만 그것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커녕,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석탄발전소를 7기나 건설 중이다.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의 인식은 무디고 대응은 너무나 더디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전환을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그린 뉴딜'을 주요 사업으로 포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동의한 것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여전히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금융 지원 또한 지속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목표가 전혀 없다. 더구나 일자리 창출 중심의 각종 규제 완화 등은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올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9월 기후위기 극복의 절박성에 공감한 33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결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계속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해왔다. 여전히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지속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둔감한 지금의 정책기조로는 기후위기의 파국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속하게 탄소배출 제로라는 절박한 목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후위기가 가져온 재앙에 가장 취약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할 새로운 전환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환경의 날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장들이 모여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다.

하루빨리 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해야 한다. 또한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구체적 길들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시민사회도 새로운 전환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쉬지 않을 것이다. 남은 시간이 정말 별로 없기 때문이다. 🌱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최수산나

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지난 2000년 6월 평양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김대중 한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AP 자료사진. (출처 VOA)

2000년 6월 15일, 남북은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만나 역사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자 6·15선언 20주년을 맞는 해이다. 코로나19로 국경이 차단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세계 각국은 긴밀한 협력의 필요를 경험하고 있다. 팍 막힌 남북관계 속에서 6·15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평화통일의 줄기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20년 전 6월 15일 평양으로부터 서울 공항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에게도 이제 새 날이 밝아온 것 같다. 55년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다'는 말을 시작으로 남북 보고를 시작하였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사진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뜨겁게 달궜다.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에 변혁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 선언은 남북 관계의 기본적 문건이 되어왔다. 선언문은 남북 간 이해 증진과 남북 관계 발전 도모, 그리고 평화통일을 실현함을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5개의 조항은 남북의 자주적 문제 해결,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 확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경제협력을 비롯한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합의를 추가로 명기한다.

6·15 선언의 가장 큰 의의가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두 번째 의의는,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첫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특성상 정상 간 직접 만남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상호 입장을 명확히 교환하고 평화와 화해 협력의 바탕 위에 구체적 실천 사항에 합의하여 향후 남북 관계의 규범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2018년 이루어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도 이어지는 특징이다.

세 번째, 이렇게 6·15선언은 실천선언이 되었다. DMZ 지뢰를 제거하여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여, 분단 후 처음으로 사람과 물자의 교류길을 열었으며, 금강산관광단지, 개성산업공단을 건설 운영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더불어 각계 분야의 남북 왕래와 만남,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남북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갔다.

네 번째는, 현실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와 통일 문제 협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원칙과 방법을 남북 정상이 재확인하고 구체적 실행들에 합의했다. 또한 당장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남북연합의 제도화를 통해 단계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평화공조와 화해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할 것을 확인했다.

다섯째, 6·15는 국제 정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이다. 북미 공동코뮤니케, 북일 평양선언 채택 등 주변국들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모색을 통해 포괄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 남북관계는 6·15 선언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고 말해진다. 6·15 선언은 한반도 평화통일사에서 대전환을 이루게 된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남북은 차이를 인정하는 공존과 상호 발전과 협력을 통한 화해와 통일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코로나19와 남북관계, 인간 안보 패러다임

지난 4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인식한다'는, 전범국가의 전쟁 발언으로 여론의 못매를 맞은 바 있다. 국가 권력들은 안보를 목적으로 무력 전쟁을 준비해왔다. 전통적 안보 개념에서 가장 큰 위협은 군사력이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안보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일으켰다.


'인간 안보'라는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인간 안보는 1994년 유엔개발계획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질병, 가난, 환경오염, 폭력 등의 위협요인의 해결을 강조한다. 이는 국경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안보와 달리, 인간을 넘어 모든 생명, 생태계를 중시하며, 개인, 공동체, 초국가성을 띠고, 국가 간 신뢰와 연대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해왔다. 하지만 국경 봉쇄, 의심 환자 격리, 학교 방학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한다. 4·15 태양절 완공을 목표로 추진돼온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완공식은 개최되지 않았으며, 평양종합병원 건설 착공이 계획보다 앞당겨지고 있다. 또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는 보건부문 7.4% 증액 편성된 예산안을 통과했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발표한 '2020 부활절 남북공동기도문'에서 따옴.

코로나19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보건 분야 공동 협력을 제안한 후, 3월 4일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심각해진 남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문대통령에게 위로의 친서를 보냈고, 3월 5일 문대통령은 감사의 답신을 전달하였다. 남북관계 전환은 오히려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 코로나19 타개를 위해 국방비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투자하자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한국도 50조 국방비 예산 중 2조 가량을 감축했다. K방역으로 칭송을 받는 한국은 국방비 감축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으로 바이러스 대처에 대한 국제 사회 동참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 휴전을 제안했듯이 말이다. 남북관계 변화를 위해서는 남한 정부의 주도적이고 단호한 행동,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6·15 선언을 다시 새기며

6·15 남북공동선언은 20주년을 맞는다. 6·15 선언이 기초하고 있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1988년 기독교 예큐메니컬 단체들이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선언(일명 88선언)'에서 영향을 받았다. 한국과 세계의 예큐메니컬 운동은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의 선두에서 함께 해왔다. 올해는 평화통일사의 역사적 사건들이 기념비적인 해수를 갖게된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YWCA는 예큐메니컬·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한반도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자는 캠페인에 1억 명 서명운동을 3년간 계획하고 있다. 1988년 기독교 운동과 선언이 2000년 남북 정상의 6·15 서명으로 이어져 평화통일의 거보를 내디뎠듯이, 우리의 종전과 평화협정 운동이 코로나 시대에서 남북 정부의 추동과 세계 정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위대한 선언들을 추억만 하지 않고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김은주

연합회 실행위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역사적 '사건'으로서 4.15 총선 그러나

2020년 제21대 총선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건'이다. 87년 체제하에서의 민주주의의 틀과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특이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 공룡여당의 탄생, 여성의당의 창당과 득표율 0.74%이다. 이 결과들은 향후 87년 체제의 질적인 전환을 추동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의한 첫 번째 선거로 다양한 대표성 보장을 통해 지역주의와 진영논리에 기생하는 양극적 양당구도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거대정당의 비례위성정당의 창당으로 변화의 물꼬가 다시 막혀버렸다. 비례대표후보를 낸 35개 정당 중 30개 정당이 1석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연동형비례대표제 하에서 다시 사표를 걱정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소수정당의 몫으로 기대되었던 '30석'을 거대정당의 위성정당들이 나눠가짐으로서 신생정당은 차치하고 기존의 제3정치집단도 몰락하였다. 여성의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자영업당 등 30개가 넘는 소수정당의 존재는 변화의 목소리이며, 갈등의 현주소이다. 다양한 대표성의 보장 없이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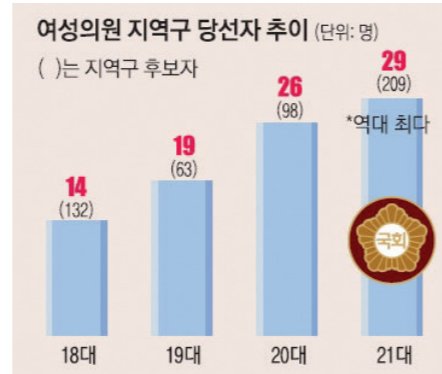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하면서 87년 이후 최고의 슈퍼여당이 탄생했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슈퍼여당의 탄생은 앞선 선거결과

와 연장선상에서 '국민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87년 이후 우리사회는 민주화되었고 민주화된 토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가 우리사회의 주류를 형성해가고 있다. 정치인들이 서 있는 판의 이동이다. 슈퍼여당의 탄생은 비례위성정당이라는 왜곡된 선택지 속에서 변화된 사회주류의 차선일 뿐이다. 일시적으로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잘해서 혹은 보수당이 무능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주류가 된 708090세대들의 다른 정치에 대한 열망이 표출된 것이다.

제21대 총선 여성 당선자 비율은 제20대 17%에서 제21대 19%로 2% 올랐다. 제19대 총선은 15.7%이었다. 마치 매년 물가인상분 만큼 올라가는 것처럼 감동이 없다. 지역구여성할당제의 의무화 없이는 이런 결과밖에 거둘 수 없다.

여성의제정당의 창당과 0.74%

2020년 총선은 여성정치에 있어 매우 중요했다. 그것은 앞선 3년 동안 그 어느 시기보다 강력한 여성의제들이 분출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성평등헌법 개정운동, #미투를 통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불평등 고발, 2018년 32만 명의 익명의 여성들이 참여했던 해화역시위 등 이들은 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통한 집행권력의 성차별적 관행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였다. 또한 버닝썬 사건 등 일상화된 성범죄에 대한 공정한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강력하게



21대 총선 여성 지역구 당선자 '역대 최다' (출처 서울신문)

요청하였다.

여성의당은 '여성의제정당'으로 준비위 구성 37일 만에 창당되었다. 지난 3년 동안 거리와 온라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불평등의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제기했던 1020세대 여성들이 창당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여성의제정당으로서 여성의당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최우선으로 하여 성별임금격차해소, 여성의 주거권, 건강권 등을 10대 공약으로 하여 37일 만에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여성의당은 창당 이후 첫 도전으로 0.74% 정당득표율과 21만 명의 지지를 받았다. 비례후보를 낸 정당 중 10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록 3% 미만으로 원내입성은 실패하였으나 여성의제정당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여성의당은 21대 총선을 선거연합제안을 거부하고, 독자 세력화를 위한 교두보로 삼았다. 원내입성 보다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다른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실험한 것이다. 여성의당은 당원의 75%가 1-20대인 청년정당이다. 달라진 생활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러나 기성정당에서는 대변되지도 대표되지 못했던 그들의 정치적 의사가 결집된 곳이다. 따라서 여성의당의 창당과 선거참여는 청년여성들이 선택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다른 전략임과 동시에 기성정당의 여성정치발전을 촉매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21대 총선 여성후보자 현황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여성후보는 209명으로 전체 1,101명 중 19%를 차지했다. 20대의 98명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여기엔 허수가 있다. 이 허수는 여성추천보조금제도의 악용이 나온 결과이다. 출마자 중 당선자는 29명으로 20대에서 3명 증가했을 뿐이다. 209명 중 29명인 13.9%가 당선되었다.

지역구 여성후보의 경우 30세 미만 2.9%, 30세 이상 40세 미만 10.5%로, 전체 여성후보자 중 40세 미만이 13.4%이었던 것에 반해 남성은 4.6%에 불과했다. 50세 이상 60세 미만과 70세 이상 등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여성 지역구 후보의 연령이 남성에 비해 낮았다.

제21대 총선에서 총 35개의 정당이 301명의 비례후보를 공천했고, 그중 여성은 165명인 55%였다. 2018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50% 이상 할당과 교호순번위반에 대한 등록무효 조항이 신설된 바 있다. 비례대표 여성후보자들의 연령별 분포에서도 전체 여성후보자 중 18.8%가 40세 미만이었다는 것에 반해 남성은 10.3%였다. 지역구 후보와 마찬가지로 여성 비례대표 후보들이 남성에 비해 젊은 층이었다.

제21대 총선 여성당선자 현황 그리고 제안

21대 총선에서 전체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 여성은 29명으로 19%를 차지한다. 비례대표의 경우 전체 47명 중 28명으로 59.5%를 차지했다.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57명인 19%의 여성후보들이 당선되어 역대 최고라는 기록을 갖게 되었다.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된 첫 지방선거이후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운동은 여성할당제도입과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국회는 3%대에서 19%로, 지방의회는 0.9%에서 31%대로 광역의회는 19%대로 여성의원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1대 의원 5명 중 1명만 여성인 셈으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구 여성할당제의 강제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비례대표 의석이 47석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는 지역구 선거에 대한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길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정당과 여성단체들은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이행하기 위한 여성후보의 발굴과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열심히 활동했던 여성의원들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슈퍼여당이 됐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은 타당 소속의 여성의원과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제20대 국회에서의 아청법 개정 및 N번방 방지법 통과에 부쳐

여성을 겨냥한 성착취는 결코 진공 속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

성착취, 불평등한 성별 권력 문제에서 기인한다

성착취는 성별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재생산되는 폭력으로서, 여성은 대개 성적 만족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소비된다. 이는 그 자체로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는 현상이자 여성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사건이다. 그 결과 성 시장 내부의 폭력이 은폐되고, 성착취가 여성에 대한 부정의 총체라는 사실도 누락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착취된 여성은 신뢰성이 결여된 존재라는 낙인에 부딪혀 공적인 발화 또한 제한을 받는다. 특히 성 시장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구조적 비판을 회피하며, 문제의 초점을 자발이나 비자발이라는 여성 개인의 선택으로 축소한다. 그럼으로써 성 시장이 어떻게 여성을 성적, 물리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착취하며 그 가운데에서 여성은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아청법 개정과 N번방 방지법 통과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는 여성들이 2015년부터 소라넷, 웹하드카르텔, 다크웹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비롯한 온라인상의 성착취 실태를 공론화하고, #OO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미투 운동을 대대적으로 접화시킨 결과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성별 권력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일상과 디지털 세계를 막론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남성 지배

체제를 위한 상품으로 매몰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성착취에 유입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성착취로 유입되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15세이다. 여성들을 더 이상 성착취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월 29일 통과

그것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변화 중 하나가 지난 4월 29일 통과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4호는 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한다. 이때 피해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신변 보호, 수사의 비공개,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인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7호에 의해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을 피해자가 아닌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하여 보호 처분을 적용했다. 이처럼 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법률이 적용되는 문제로 인해 성착취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신고를 주저했고, 알선자나 매수자들 역시 여성들을 협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또한 보호관찰기관에서도 이들은 피의자이자 가해자인 청소년들과 구분되지 않고 교육보다는 훈



21대 국회 개원식 날인 6월 5일 N번방 성착취 범죄를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육에 가까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보호나 지원이 불가능했다.

기쁘게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상 아동 청소년’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모든 성착취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들은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규정되며, 보호처분 대신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변화와 함께 아동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불기소, 불체포가 원칙이 되기를 고대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을 체포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데, 이는 피해자들이 다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여성 청소년을 성 시장에 유입되도록 했던 사회적 맥락을 사건 처리의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뜻이다. 그럼으로써 피해 여성 청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가능하도록 쉼터 등의 시설 연계와 교육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N번방 방지법 통과, 성착취물은 ‘피해촬영물’

다음으로 이루어진 변화는 N번방 방지법 통과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웹하드와 같은 특수유형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이것으로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무제한으로 복제 및 변형이 가능한 성착취물의 유통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착취물은 ‘음란물’이 아닌 ‘피해촬영물’로 명확히 정의되었고, 성착취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대상은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해당 사업자들은 성착취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해외사업자들에게도 성착취물 유통에 대한 책임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의 처벌이 가능해졌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

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되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일지라도 타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것을 유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특수 공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그것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예비 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해졌다. 비록 이렇게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실제 성착취 현장에는 법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백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가령 여성의 신체를 부분마다 촬영한 사진을 단채카톡방에 게시할 경우 직접적인 처벌의 대상으로 이해되지 못하기도 하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착취의 특수성을 반영한 처벌 대상들이 구체화 되어야 하며, 관련 양형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못한 그루밍 등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 성착취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최근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은 과거 트위터 내 아동 청소년 성착취 사건, 랜덤채팅 어플 내 아동 청소년 성착취 사건들의 연장선으로 발생한 것이다. 과거 PC 통신 시절에도 여성을 타겟으로 한 성착취 사건들은 엄연히 존재했으나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을 뿐이다.

여성을 겨냥한 성착취는 결코 진공 속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성착취는 그 사회의 남성 문화가 승인하는 태도와 가치로 채워진 축소판으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상의 성착취를 근절할 방법은 성착취가 이루어지는 수를 차단하고, 피해자들이 성착취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최초의 여성의제 정당인 여성의당은 여성이 완전하게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가 구현되도록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다. 제21대 국회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남성 집단과 그들을 방조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및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에 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 및 시행되도록 하는 여성의당은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데이터 3법’이 놓친 것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빅데이터 3법. 일러스트: 정연주 제작 (출처 연합뉴스)

데이터의 핵심 ‘개인정보’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는 이미 익숙한 비유에서 알 수 있듯, 데이터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앞세운 정부와 여당은 신기술의 발전을 위해 소위 ‘데이터 3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는 그럴 듯 하지만, 문제는 이 데이터의 핵심이 ‘개인정보’라는 데 있다.

우리는 소비자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주체이자, 시민으로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주체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의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데이터 3법,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인정보 3법’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이를 ‘개인정보 도둑법’이라 비판해왔다.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소위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법률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률은 개인정보의 처

리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왔던 감독기구의 역할을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후자의 경우는 (개정안이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것이다. 문제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쟁점이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 공유의 위험성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통상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수집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는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해야 한다. 여기서 가명처리란 일부 식별자를 제거하여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한 것인데, 여전히 개인이 재식별될 수 있어 개인정보로 간주된다. 문제는 ‘과학적 연구’가 무엇인지, 혹은 과학적 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적 연구’를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로 정의하고 있다.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라니, 이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미신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도 있는가.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과학적 연구라고 주장하는 모든 연구, 예를 들어 기업 내부에서 신상품 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 역시 ‘과학적 연구’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필자는 ‘학술 연구’를 위해서 때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사회의 지식 기반을 확충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 내부적인 사적 이익을 위한 연구를 위해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예를 들어 A 포털사가 신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B 통신사의 고객정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요청을 받은 B 통신사는 자신의 고객정보를 가명처리해서 A 포털사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B 통신사가 A 포털사에 무료로 제공할까? 아마도 고객정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혹은 A 포털사의 고객정보를 반대급부로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B 통신사의 고객정보를 탐내는 곳은 A 포털사만이 아닐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서로 다른 기업들의 고객정보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공공기관을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업들의 고객정보 결합을 지원한 바 있다. 예를 들어 A 기업과 B 기업의 고객정보를 결합하여 생성된, 공통 고객의 결합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A, B 두 기업에 제공할 것이다. A 기업은 B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별다른 비용 없이 획득한 셈이다.

이런 식으로 소위 ‘데이터 3법’은 서로 다른 기업들이 가명

처리된 고객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통신사에 제공한 내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포털, 금융, 유통업체로 흘러들어가갈 수도 있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공유된다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재식별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정보주체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도둑법이 되지 않으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미 통과되었지만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위험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시행령 및 고시에서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공공적인 가치가 있는 학술 연구로 제한하고 개인정보 결합의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8월 5일 새롭게 출범할 예정인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중요하다.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본권의 수호자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인정보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중심설계 및 기본설정(Privacy by Design &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빅데이터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과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내 인생이 잠깐 일시정지 된 느낌이야



대학·청년Y

IMF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일자리 사정이 악화된 2020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에 우리는 사회의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년들이 느낀 변화와 두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봤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으로 청년토크를 진행했다.

_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 도** 이제 여름이라 마스크가 너무 답답해.
- 레** 그러니깐. 한동안은 마스크도 못 살까봐 무서웠는데 그래도 5부제 때문에 한시를 났던거 기억나.
- 파**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 너희도 못 만나고 너무 속상해.
- 미** 그러게 다들 보고 싶다. 매년 YWCA 활동이 있어서 자주 봤는데 올해는 아직 한 번도 못 봤네.
- 레** '청년토크'도 만나서 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아쉽다.
- 도**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전염병이 점점 찾아지는 것 같지 않아?
- 파** 그러게 말이야. 나는 대학 생활 두 번이나 전염병이 돌았어. 너무 무서워.
- 미** 건강이 걱정되는 건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큰 타격을 받으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 도** 전염병이 돌면 소득격차가 엄청 심해진다고 하잖아. 너희도 느끼고 있지?
- 파** 당연하지.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나도 느끼는 걸.
- 레** 여기서 문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타격이 크지 않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실직이나 임금 삭감을 겪는다는 거야.

- 미** 맞아. 결국은 이 모든 게 빈부격차와 관련된 문제지.
- 파**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사태 동안 문을 닫고 가게를 빼더라고.

_ 청년들은 무슨 피해를 받고 있을까?

- 레** 소상공인, 일용직도 실직이나 임금삭감과 같은 피해를 받지만, 청년들도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어.
- 도** 나는 개강하고 아직도 학교를 못가고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데, 수업 커리큘럼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니 한 학기 등록금이 너무 아까워.
- 미** 공감! 우리 학교는 등록금 환급에 대해 이야기도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
- 도** 온라인 강의는 집중도 안 되고, 과제나 시험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억울해.
- 파** 나는 신입생인데 꿈꿔 오던 대학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어. 개강 이후의 낭만따위 나에겐 허락되지 않는 걸까.
- 레** 난 올해 졸업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도 못 가서 졸업한 느낌이 없어. 그리고 취업도 어렵고, 공채일정, 자격증 시험 다 밀리고. 난 그냥 아무것도

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서 집에서 눈치 보여 죽겠다.

- 도** 솔직히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공공요금지원 등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대학생이나 취준생 청년들은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아.
- 파** 등록금은 그렇다 치고, 나는 온라인 강의를 하니 제대로 입학도 안 한 것 같은데 입학금도 안 돌려준다는 게 제일 억울해.
- 미** 입학식도 안하고, OT, MT도 안 갔는데 입학금은 어디에 쓰이는 거야?
- 파** 교내 시설도 사용 못하고, 셔틀버스도 안 타는데 등록금만 다 내는 게 너무 억울해.
- 레** 나는 미대생인데 실기 수업도 못 하고 있어. 다른 학과보다 등록금도 비싸고 졸업 작품도 만들어야 하는데 진짜 '노답'(답이 없다)이야.
- 도** 월세도 감당 안 돼. 올 초에 2년 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학교를 못가고 있잖아. 언제 다시 오프라인 수업을 할지 모르니 계속 살고는 있는데, 억울해.
- 도** 맞아. 청년들을 위해서도 정부가 월세나 생활비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
- 파** 나는 1년 동안 다니던 '알바' 그만뒀어. 거의 잘린 거나 다름없어서 억울한데 사장님 입장도 이해되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만뒀지.
- 미** 그래도 슬슬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 지원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무기력해진 삶은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 걸까? 뭔가 내 인생이 잠깐 일시정지 된 느낌이야.

_ 포스트 코로나라고 들어봤어?

- 레** 포스트(post, 이후)와 코로나(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합성어야. 감염증 극복 이후에 다가올 상황을 말해.

- 도** 진짜 끝나긴 끝날까? 난 이제 지쳤어. 평생 마스크랑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야.
- 파** 여행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집에만 있으니깐 삶의 의욕이 사라져.
- 미** 오죽하면 사람들이 달고나 커피, 아이스크림 만들기 SNS 인증에 빠지겠냐고. ㅋㅋ~
- 레** 소비방식도 완전 바뀐 것 같아. 원래도 온라인 쇼핑을 많이 했지만 그 수요가 훨씬 높아진 것 같아.
- 도** 맞아. 아파트 단지가 택배로 터져나갈 것 같아. 옆집 택배, 우리집 택배 거의 '배틀' 수준.
- 파** 운동도 헬스장에서 못하니 '홈트'(홈 트레이닝)가 유행이잖아. 유튜브 운동 채널들이 대박나고 있대.
- 미** 드라이브 스루나 배달 서비스도 수요가 엄청 늘었잖아. 접촉을 안 하니깐 안전한 느낌이 들어. 그런데 이게 매일 시켜먹다 보니 내 아랫배만 계속 나온다.
- 도** 코로나 전에도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세상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대면 소통이 더 줄어들 것 같아서 속상해.
- 파** 그러게. 우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잖아. 사람들끼리 마음 편하게 만난 게 언젠지 모르겠다.
- 레** 우리도 올해 대학·청년YWCA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있지.
- 도**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대학·청년YWCA의 활동인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할지 생각이 많아져.
- 미** 아쉬워도 어떡해. 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너희랑 전국대회도 하고 재밌는 활동도 많이 하면 좋겠다. 그나저나 이왕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김에 끝나고 우리도 #덕분에챌린지 참여하자.

도 레 미 파 다들 보고싶다!!!



김예리
서울YWCA 여성운동국 부장

서울YWCA는 강남역혐오범죄 4주기를 맞아 5월 15일(금) 여성 혐오범죄의 피해자를 기억하고 혐오 없는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는 예배를 진행했다.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그 후 4년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범죄사건 이후, 여성혐오를 멈추라며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의 여성혐오 범죄와 마주해야 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여성혐오의 실상을 마주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담한 일이었다.

2016년 당시만 해도 ‘여성혐오’는 낯선 개념이었다. 경찰청장이 ‘혐오범죄’라는 유형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남역살인사건을 혐오범죄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여성혐오’란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 뿐, 여성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여성혐오로 가득한 사회에서 혐오를 온몸으로 겪으며 살고 있었다. 여성혐오(misogyny)란 ‘여성멸시’를 뜻하는 말로, 단순히 여성 개인이 ‘싫다’는 감정 차원의 배제나 증오가 아니라 여성 일반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낙인을 의미한다.¹⁾ 여성혐오는 여성을 부차적인 존재, 2등 시민, 주체가 아닌 객체로 여기고, 외모로 평가하거나 성적대상으로 취급한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드러난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는 이 같은 여성혐오적 인식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여성혐오범죄이다. 국민적 공분

이 일며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고 피해자들이 속속 구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단톡방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이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 여성혐오는 현재 진행 중이다.

여성혐오 없는 공동체를 위한 예배를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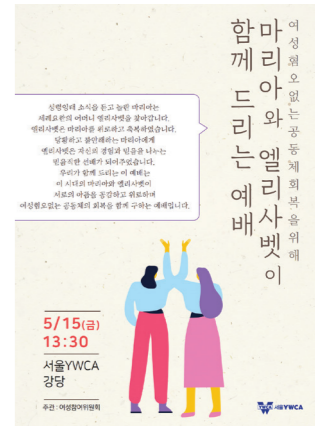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으로 여성혐오가 폭력의 형태로 또다시 드러난 이때, 서울Y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로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였다. 연대 단위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재판을 감시하며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기독교여성단체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그러던 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처럼, 여성혐오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 땅의 여성들과 함께 우는 예배, 또 여성 당사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순결이 강조되던 시대, 성령잉태 소식을 듣고 당황하며 불안에 빠진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자신의 경험과 믿음을 나누는 믿음직한 선배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여성혐오 없는 공동체의 회복을 함께 구하는 예배. 예배드리는 곳이 곧 운동의 현장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를 준비했다.

더불어 이 예배가 ‘안전한 예배’로 드리시길 바랐다. 몇 해간 기독교여성주의 운동을 펼치며, 가부장제와 유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성차별적인 예배로 시험에 빠진 여성청년들을 수도 없이 만났고, 이들에게서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발견했다. 이에 여성차별의 문제를 기억하는 예배,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가 들리는 예배, 성차별적 요소가 제거된 여성목회자의 설교가 선포되는 예배,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수평적인 예배 등 여성주의적 관점을 담아내려 했다.

이번 예배는 서울Y 여성참여위원회의 주관으로 드러졌다. 위원회에서는 밤에 이삭을 남기듯, 연간 회비 잔액을 기독교여성주의 운동을 위해 3년째 후원해오고 있다. 후원금은 2018년 여성의 눈으로 성서읽기, 2019년 교회언니들의 페미니즘 수업, 그리고 이번 예배의 씨앗이 되었다.

황성연 위원장(서울Y여성참여위원회)과 이기쁨 활동가(서울Y여성참여팀)의 공동 인도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행18:9)는 성경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예배로 초대했다. 이민서 회장(서울Y대학·청년YWCA)이 시대의 아픔을 아뢰는 기도를, 김수련 위원(서울Y여성참여위원회)이 위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채송희 목사가 ‘마리아찬가(Magnificat)’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아직 마리아찬가를 부를 수 없는 여성혐오 가득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마리아의 아픔과 두려움을 알아봐 주고, 젊은 세대를 윤리와 종교적 관습의 잣대로 선별리 재단하기보다 함께 손을 잡고 정의의 하나님나라를 함께 꿈꾸는 엘리사벳이 되어야 함을 촉구했다. 김유진 회원(서울Y대학·청년YWCA)과 김순임 위원(서울Y여성참여위원회), 이유림 회장(서울Y)이 여성혐오와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



서울YWCA는 강남역혐오범죄 4주기를 맞아 5월 15일(금) 여성 혐오범죄의 피해자를 기억하고 혐오 없는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는 예배를 진행했다.

님께 고했고, 모든 참여자들이 혐오범죄 피해자의 회복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 여성혐오 없는 사회/교회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다.

기억하며 기도하는 예배공동체를 소망하며

두 해 전 교회언니들의 불금파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서울Y에 여성청년을 위한 든든한 교회언니, 그리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라는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이번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고통받는 마리아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고 힘을 주는 엘리사벳이 되라는 마음을 주셨다. 일관성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서울Y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닐까? 그리고 YWCA를 향한 뜻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서울Y는 지금 기도의 자리가 최전방이라는 믿음으로 엘리사벳 기도운동을 조심스레 꿈꾸는 중이다.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에 함께 있지 못했던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었다”

예배 후 한 참여자의 소회를 들으며, 2016년 5월 17일 그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우연히 살아남은 자들은 그 안타까운 죽음이 드러낸 여성혐오와 맞서 싸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방식으로 여성혐오와 싸울 것이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운동의 현장이고, 함께 했던 예배자들이 모두 활동가이다.

1) [우리는 '여혐사회' 속에 산다] ① 우리가 겪는 여성혐오, 경향신문, 2016.5.23.

2) 전(예장통합)여전도회전국연합회 계속교육원 국장 / 현장로회신학대학교박사과정



편집실

광주YWCA가 5월 14일(목) 광주YWCA 강당에서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 기념 제26회 오월Y시민포럼 및 박용준 열사 추모예배를 드렸다. 박용준 열사는 광주YWCA신용협동조합 교도원으로 임용되어 성실히 일하다가, 1980년 5월 27일 새벽 끝까지 광주와 YWCA를 지키다가 계엄군의 총격으로 스물다섯 나이로 청춘을 마감했다. 광주YWCA는 박용준 열사를 추모하며 장학금을 제정해 5·18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오월Y시민포럼은 장헌권 목사(NCC인권위원장, 광주서정교회 담임, 시인)가 '광주민중항쟁 때 광주 기독교는 무엇을 했는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포럼을 요약해 실는다.

광주민중항쟁은 이름 없는 열사들의 항쟁이다. 광주민중항쟁과 기독교 역할을 이야기하기 전 먼저 한국교회와 민주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정교분리를 내세운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사회참여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 해방 후 이승만정권이 기독교 정권처럼 되자 친정부적인 기독교가 되었다. 결국 4·19 혁명과 이승만정권이 무너지고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등장하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사회참여를 조금씩 하게 된다. 특히 1972년 10월 27일 유신헌법으로 군사독재 장기집권체제가 시작되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민주화운동사에서 개신교계의 민주화운동인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은 '개신교회가 민주화 운동에 본격적, 조직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된 촉발사건'이라고 했다. 1973년 4월 22일 남산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

서 '민주회복', '언론자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반정부시위를 시도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으나 개신교 전반에 넓고 깊은 반향을 일으켰다.

1970년대 기독교의 민주화와 사회참여운동은 YH 사건으로 대미를 장식하면서 유신체제 종말의 서곡이 되었다. 유신체제의 붕괴의 전주곡이 부·마민주항쟁이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유신의 심장을 쏜다. 이어서 79년 11월 서울 YWCA에서 '위장 결혼식' 시국집회를 통해서 즉각 민주 정부를 구성하라고 주장한다. 물론 광주에서도 11월 28일 기장 전남노회 주관으로 YWCA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원천봉쇄되면서 경찰과 충돌이 되었다. 19명 연행되고 구류를 살게 되었다. 사실 유신이 죽었지만 이어서 군사반란이 일어난다.

광주민중항쟁 때 광주기독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본회퍼 목사의 미친 운전사 이론으로 두 측

면에서 보고자 한다. 하나는 미친 운전사를 더 이상 운전하지 않도록 시민군으로 적극 참여했던 부분과 미친 운전사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주는 역할이다. 물론 본회퍼는 히틀러를 제거하는 암살 음모에 가담하여 결국 순교를 한다. 행동하는 신학자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본회퍼의 사회윤리는 전자이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후자도 필요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먼저 후자로서 기독교의 역할이다. 바로 시민수습대책위원회다. 당시 조아라 회장을 비롯한 YMCA 이사 김천배 등과 함께 사태를 수습할 방법을 의논하고 실행했다. 또한 <호남선교> '13년 만에 처음 공개하는 광주민중항쟁 당시의 교회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교회가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폭도로 규정되었다. 삼엄한 계엄 하의 상황에서 광주 시내 교회와 전국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부단히 일어섰다. 계엄 사령부를 방문하고 폭도가 아님을 밝히는 항의 발표를 요구했다. 광주기독교연합회(NCC)는 광주 5·18사태를 항쟁으로 규정짓고 81년부터 계속 5·18 기념예배를 주도했다.

5월 22일 광주 시내 15개교와 2백여 교회에서 1백여 명의 목사 장로들이 제일장로교회(한완석목사 시무)에 참석해 광주시 기독교수습대책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계엄 본소장을 만나 '정확한 바른 보도를 할 것, 폭도라는 과격한 말 사용하지 말 것, 연행자를 석방할 것, 보복을 하지 말 것, 계엄군의 과도한 진압과정을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매일 낮 12시 일제히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한국YWCA연합회와 전국 18개 지역 YWCA가 함께 했다.

무엇보다 광주의 의인들이 있다. 광주정신은 저항정신과 살림 평화의 정신이며, 대동정신 주먹밥 나눔과 섬김의 정신은 바로 예수정신으로 성서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 가치관을 온 몸으로 실천한 사람으로 광주의 의인 가운데 필자는 세 사람을 생각한다. 호신대 문용동 전도사, 한신대 류동운 신학도 그리고 고아 출신인 박용준 열사다. 이들은 시대의 어둠을 온몸으로 맞서다가 송고한 정신을 남기고 떠났다.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보내고 있다. 40년이 되었지만 여



전히 광주는 뜨거운 주제이며 세계사적으로 기억해야 될 지독한 그리움이다. 2020년 4월 27일 전두환은 광주 법정에 1년 만에 다시 섰다. 그는 유가족과 광주시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죄의 말도 하지 않았다. 헬기사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처럼 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 특히 광주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았던 열사들처럼 현재진행형인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고통, 제주 4·3항쟁, 광주민중항쟁, 세월호 등을 위하여 광주 여성들의 살림문화로 함께하는 일에 광주YWCA가 중심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미완의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광주의 영원한 슬로건은 '오월에서 통일이'이다.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시편85편10-13절)를 기억하라! 오월의 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 들어라! 오월의 함성, 외쳐라! 평화의 노래.

꽃만 봐도 서러운 그날 -봄빛 가득찬 길가에/ 하늘의 쌀밥나무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오월 꽃잎들은/속잎 겹겹 섞어/꽃무덤으로 엮으려 있습니다// 하늘 님은 영혼들이/주먹밥 얼싸안고/춤을 춥니다//하얀 가슴들이/ 눈시리도록 쏟아지는 /싱그러움으로/새벽길 열어줍니다.



울산 북구 주민 47,829명이 반대한다! 추가건설 중단하라!

여진경
부산YWCA 정책기획부장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 북구 주민투표가 6월 5일(금)부터 6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었다. 6월 5일(금) YWCA동부지역위원회(김해, 대구, 부산, 울산, 진해)에서 총 41명이 사무위원으로 참여해, 총 34개 투표소 중 6개 투표소를 맡았다. 청주Y는 울산주민투표 사전 준비를 위해 5월 26일(화) 울산을 방문했다. 울산Y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에 참여하여 주민투표 전반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지났어도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장도 없이 '임시저장시설'에 핵폐기물을 보관 중이다. 특히 울산은 울산시청 기준 반경 30km 이내에 전국 고준위핵폐기물의 70%를 꺼안고 있다.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울산시민 1백만 명이, 울산 북구는 월성핵발전소 기준 반경 20km 이내에 21만 명이 살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임에도 산업자원통상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울산시·구 자치단체장과 의회,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았다.

임시저장시설에서 핵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주민들의 의견은 배제되어 북구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20년 2월 19일 11,483명의 서명지와 주민투표 청원서를 산업자원통상부에 제출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핵발전소 관련 시설의 운영과 설치의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고, 재검토위원회와 경주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울산 북구 주민투표 결과 50,479명이 투표에 참여, 47,829명이 건설반대에 투표했다. 이후 투표결과를 청와대에 가지고 가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총 유권자의 28.82%가 참여했으나 울산 북구 주민들의 반대 의사(94.8%)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가 행정구역으로 한정해 진행하는 재검토에 문제가 있음을 한국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10만 년은 아득한 먼 세월이다. 그러나 이 10만 년에 대한 책임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다. 그 책임을 6월 5일 울산에서 한 발짝 시작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선한 영향력

오수경
청어람ARMC 대표

퇴근 후에 피자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내가 운영하는 피자 가게에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한다. 물론 진상 손님들도 있지만 대부분 착한 손님들이다. 손님이 주문한 대로 피자를 잘 구워 "이 피자를 맛보고 나서야 제 인생이 완성되었네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어요" 등의 칭찬을 들으면 피자 가게 열길 잘했다는 생각도 든다. '코로나19'로 불황이라지만, 내 피자 가게는 날마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오해 마시라. 실제로 피자 가게를 차린 건 아니고, 긴 출퇴근 시간을 견디고자 시작한 게임 이야기다. 비록 게임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으로 피자를 만들다 보면 뜻밖의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잠시 현실 세계를 떠나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보상받고, 서로를 향한 선의와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가상 세계를 체험하는 게 요즘 내가 누리는 호사다. 나쁜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도피처가 필요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사람들이 닌텐도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으로 모이고, 고양이 사진이나 식물 책을 보는 이유가 그저 우연은 아닐 것이다.

'선한 영향력'의 시대

최근 몇 년 사이 '선한 영향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좋은 메시지, 선한 영향력으로 항상 다가가겠습니다"라는 BTS 멤버 제이홉의 말(2019 MAMA 수상 소감)과 "저는 선한 사람이 아니지만, 예능인 박나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개그우먼 박나래의 말

(2019 MBC 연예대상 수상 소감)이 대표적이다. 이런 연예인의 선한 영향력은 팬덤 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선한 콘텐츠도 부쩍 늘었다.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 <열혈 사제>(SBS), <눈이 부시게>(JTBC), <동백꽃 필 무렵>(KBS2)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드라마 외에도 소수자나 약자를 향한 편견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재미를 전달하는 데 성공한 '뽕수' '유산술' 같은 캐릭터가 선한 영향력의 대중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흐름은 2020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나 넷플릭스 드라마 <인간수업>과 같은 정신을 얼얼하게 하는 자극적인 소재의 드라마가 유행이라지만,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과 같은 선한 이야기의 힘은 막장 드라마의 강렬함 못지않게 세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은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병원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99학번' 의사들의 일상을 담은 드라마다. 인간사를 재현하는 방식을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방식과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여 지향을 보이는 방식으로 나눈다면 <슬기로운 의사 생활>은 적극적으로 후자를 선택했다. '울제병원'에는 그 흔한 병원 내 권력 다툼이 없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없다. 울제병원 속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울제병원 이사장 가족은 자신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

물론 한 번이라도 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이 무수하고, 인간과 사회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면에서 이 드라마는 '판타지'일 수 있다. 이 드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응답하라' 시리즈와 <슬기로운 감빵 생활>을 만든 신원호 PD와 이우정 작가의 작품들이 대부분 그렇다. 선한 인물들의 이야기와 '남편 찾기'와 같은 낭만적 설정과 추억을 자극하는 음악 뒤에는 고단한 '현실'이 뭉개져 있다. 마치 포토샵 효과를 적용하여 잡티와 주름을 제거한 뽀얀 사진같이 이 드라마는 대중이 보고 싶어하거나 욕망하는 것을 '슬기롭게' 재현할 뿐 현실은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드라마가 마냥 선하기만 한 드라마일까?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포스터

'남들이 행복하게 먹는 걸 보는 게 더 행복한 사람들의 세계'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는 단순한 '판타지'를 넘어서는 힘이 있다. 자신의 역할에 성실한 의사, 기꺼이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는 착한 부자, 선의와 존중으로 연결된 관계 등 저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며 살리고자/함께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고 선한 직업인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선한 영향력'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한다. 극 중 채송화 선생이 말한 세 종류의 사람(자기가 맛있는 걸 먹는 게 행복한 사람, 혼자서 먹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 남들이 행복하게 먹는 걸 보는 게 더 행복한 사람) 중 세 번째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세계 말이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보여 준 '선한' 이야기는 단지 선하기만 한 것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허허실실 관습의 허를 찌르고, 시선을 전환하여 우리가 보는 세계를 확장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를 공유한다. 이 드라마는 다른 드라마라면 당연하게 등장했을 정치, 음모, 배신, 욕망, 삼각관계에 익숙한 시청자의 예측을 기본 좋게 배신(?)하며 우리 사회의 결여와 지향을 동시에 보여준다. 순수하게 환자를 걱정하며 잠을 설치는 의사를 보며 "세상에 저런 의사가 어디 있어?"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질문이 머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선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시선이 머문 익숙한 대상 너머의 대상을 보게 한다. 11회에 나온 간호사인 송수빈 선생의 딸이 병원에 입원한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병원에 입원한 딸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엄마인 간호사를 비롯하여 다들(심지어 시청자들도) 당연히 (잘생긴) 의사를 촬영하는 것이라 짐작한다. 그러나 사실 간호사인 엄마를 촬영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다. 엄마를 사랑하는 딸의 마음이 느껴졌지만 그걸 넘어서서 '의사' 중심인 드라마에서 '간호사를 놓치지 않고 중심에 놓도록' 시선을 전환하고 확장했다는 점에서 나는 이 장면이 특히 좋았다. 이렇게 확장된 시선의 끝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은 의사들 이야기 못지않게 환자와 가족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등장한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당도가 높은 달콤한 판타지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그토록 몰입했을까? 그 세계를 보며 '현실도 그랬으면' 하는 미덕과 윤리를 발견하고, 그래도 세상 어딘가에 '울제병원'과 같은 곳이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을 품어보고, 이왕이면 '남들이 행복하게 먹는 걸 보는 게 더 행복한 사람'이고 싶은 다짐을 하며 뜻밖의 위로를 받았던 건 아닐까? 이것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은 각자 도생 사회에 전하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선한 영향력일 것이다. 

연합회 소식

씽크머니 협약식



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은 4월 14일(화) 씨티은행 본점에서 제15회 씽크머니 협약식을 개최했다. 씽크머니 협약은 씨티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데, 박진희 한국씨티은행장이 한영수 연합회장에게 지원금 약 3억6천만 원(미화 30만 달러)을 전달했다. 올해는 27개 회원Y에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상설 금융교육체험장인 펍핀 3호를 세종YWCA에 개소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청소년들이 쉽고 친숙하게 금융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은 4월 14일(화) 씨티은행 본점에서 제15회 씽크머니 협약식을 개최했다. 씽크머니 협약은 씨티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데, 박진희 한국씨티은행장이 한영수 연합회장에게 지원금 약 3억6천만 원(미화 30만 달러)을 전달했다. 올해는 27개 회원Y에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상설 금융교육체험장인 펍핀 3호를 세종YWCA에 개소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청소년들이 쉽고 친숙하게 금융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신임사무총장연수



연합회는 4월 16일(목)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살롱에서 신임사무총장연수를 개최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초까지 새로 선출된 회원 YWCA (군산, 광양, 남양주, 동해, 속초, 안양, 원주, 울산, 제주, 진해) 신임 사무총장 10명이 참석했다. 회원YWCA 현안 및 과제, YWCA운영, 재구조화 및 부속시설 新운영정책, YWCA 목적과 중점운동, 사무총장 역할 이해 등은 물론 기록여성시민단체 YWCA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했다.

연합회는 4월 16일(목)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살롱에서 신임사무총장연수를 개최했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초까지 새로 선출된 회원 YWCA (군산, 광양, 남양주, 동해, 속초, 안양, 원주, 울산, 제주, 진해) 신임 사무총장 10명이 참석했다. 회원YWCA 현안 및 과제, YWCA운영, 재구조화 및 부속시설 新운영정책, YWCA 목적과 중점운동, 사무총장 역할 이해 등은 물론 기록여성시민단체 YWCA의 비전과 사명을 공유했다.

키다리학교 운영진 온라인 워크숍

2020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이 4월 25일(토)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8개 회원Y(거제,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순천, 창원, 청주) 키다리학교 운영진 20명, 연합회 TF 위원 6명이 참여한 가운데, 키다리학교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워크숍에서는 YWCA 청소년 운동 의미와 운영진 네트워크의 목적을 공유했는데, '청소년기 행복했던 기억'(최향숙 위원), '청소년 활동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김대영 위원)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추후 과제로 키다리학교 회원 모집 방안을 모색 중이다.

2020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이 4월 25일(토)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8개 회원Y(거제,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순천, 창원, 청주) 키다리학교 운영진 20명, 연합회 TF 위원 6명이 참여한 가운데, 키다리학교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워크숍에서는 YWCA 청소년 운동 의미와 운영진 네트워크의 목적을 공유했는데, '청소년기 행복했던 기억'(최향숙 위원), '청소년 활동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김대영 위원)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추후 과제로 키다리학교 회원 모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제25차 탈핵 캠페인

연합회는 4월 28일(화) 연합회관 앞에서 '체르노빌 34주기와 21대 국회에게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촉구합니다'라는 주제로 제25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연합회 자원·실무활

연합회는 4월 28일(화) 연합회관 앞에서 '체르노빌 34주기와 21대 국회에게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촉구합니다'라는 주제로 제25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연합회 자원·실무활



동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전환과 절감에 앞장서야 함을 알리고, 21대 국회가 '탈핵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YWCA 씽크머니 금융·경제 강사교육



2020년 YWCA 금융·경제 강사교육이 5월 7일(목)~9일(토)/ 5월 27일(수)~29일(금) 총 2회로 나누어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

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사교육은 태블릿PC와 VR을 활용한 펍핀 강의 이해와 시연, 사회적경제 관련 강의로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은 씽크머니와 수도권지역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28개 지역에서 총 212명의 강사들이 참석했다.

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사교육은 태블릿PC와 VR을 활용한 펍핀 강의 이해와 시연, 사회적경제 관련 강의로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은 씽크머니와 수도권지역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28개 지역에서 총 212명의 강사들이 참석했다.

연합회 온라인 비상실행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비상실행위원회가 5월 14일(목) 오전 11시 신임 5부지역위원장과 실행위원 22명과 연합회 상임이사, 실무활동가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실행위원회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2020년 정기총회가 개최하지 못하고, 비상임위원회 체제로 위임한 이후 처음 열렸으며 역사상 최초의 온라인 실행위원회이기도 하다. 한영수 회장 사회로 연합회 1/4분기 사업보고, 2/4분기 사업목표, 2차 대면총회 운영방식 등을 논의했다.

한국YWCA연합회 비상실행위원회가 5월 14일(목) 오전 11시 신임 5부지역위원장과 실행위원 22명과 연합회 상임이사, 실무활동가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실행위원회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2020년 정기총회가 개최하지 못하고, 비상임위원회 체제로 위임한 이후 처음 열렸으며 역사상 최초의 온라인 실행위원회이기도 하다. 한영수 회장 사회로 연합회 1/4분기 사업보고, 2/4분기 사업목표, 2차 대면총회 운영방식 등을 논의했다.

은학의집 개관 20주년 기념예배



YWCA복지사업단이 운영하는 YWCA 은학의집이 5월 15일(금) 개관 2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코로나19 사태로 개관 20주년 기념 음악회 등 계

획된 행사를 취소하고, 개관 20주년 감사카드와 기념 영상을 제작하여 은학의집 가족과 후원자 등 감사한 분들과 나누며 의미를 다지는 시간을 다졌다.

YWCA 기록물 기록관리교육




연합회는 5월 18일 (월)에 명동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 살롱에서 36명의 연합회 및 회원Y(대구·서울 아카 이브 담당)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YWCA 기록물 기록관리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연합회가 YWCA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안대진 대표(아카이브랩)가 기록물 의미와 중요성, 기록물 생성 주체로서의 역할 등을 강의했다. 근현대사의 사회적 기억으로써 YWCA 역사 가치를 설명하고, YWCA 아카

이브가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됨을 인식시켜주었다. 향후 한국YWCA 기록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연합회뿐만 아니라 회원Y의 중요한 기록물들을 잘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개편

연합회는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해 6월 17일(수) 오픈했다. 한국YWCA 주요 소식과 보도자료, 활동자료(탈핵, 성평등, 평화·통일, 대학·청년, Y·틴, 소비자, 금융·경제교육), 회원YWCA 소식, 온라인 교육자료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상에서 소식지 받기 신청을 통해 한 달에 한 번 한국YWCA 웹레터를 받게 된다. 

YWCA 1922 장학금 모금현황

(2020. 4. 1 ~ 2020. 5. 31)

기부자 명단	금액
구정혜, 임국미, 이윤숙	160,000
2월~3월 모금액	160,000
누계	6,568,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20. 4. 1 ~ 2020. 5. 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기부 (2020. 4. 1 ~ 2020. 5. 31)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청주Y), 광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연,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나차더르즈 돌람수렌,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윤희, 문인수, 민선영,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임희, 박지영, 박진화, 박효정,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은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주영b, 이주영c, 이지윤, 이찬형, 이찬진, 이행자,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세영,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천유란, 최수산나,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황홍백	3,465,000
회원 YWCA	거제Y, 광주Y, 군산Y, 남양주Y, 대구Y, 대전Y, 동해Y, 목포Y, 목포Y, 부산Y, 부천Y, 사천Y, 서귀포Y, 서울Y, 서천Y, 성남Y, 세종Y, 수원Y, 순천Y, 안양Y, 양산Y, 여수Y, 연합회, 원주Y, 익산Y, 전주Y, 제주Y, 제천Y, 진해Y, 창원Y, 천안Y, 청주Y, 충주Y, 통영Y, 하남Y	12,390,610
사순절 캠페인	개인 기부 건지울, 구정혜, 김경애, 김상은, 김순자, 김영자, 김예강, 김예건, 김은영, 김진, 김충민, 남궁혜경, 또야, 류인숙, 문윤희, 박경린(광주), 박문경,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효정, 배정미, 서옥희(광주), 송록희, 유성희, 윤현순, 이경순, 이기자(안동Y), 이윤숙, 이윤자, 이은화, 이종임, 이주영A, 이행대, 이혜련, 이희정, 임국미, 장수빈, 정서연, 차경애, 천유란, 최수산나, 최순영, 최지영, 한미미, 함희경, 홍하늘, 홍현정	4,035,680
개인 기부	이행대	10,000
회원YWCA	창원Y, 논산Y, 창원Y, 동해Y	285,560
YWCA 어린이집	창원Y어린이집, 부산Y부설어린이집	634,830
협력 교회	한양대학교교회, 황간임마누엘교회	260,000
기관 및 단체	농협, 레오나디스, 르뱅, 명성약국, 알파, 에세레, 전광수	31,320
합계		21,113,000

한국YWCA 입장문

회원, 시민들께 알립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 관리에 관한 관심과 사회적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으로 일부 언론들의 시민사회단체를 향한 도적이고 왜곡된 공격성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조선일보는 6월 8일자 <권력이 된 시민단체>-정부, 보조금으로 NGO 길들이기'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여러 시민단체와 한국YWCA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방만하게 사용하면서 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격정과 우려를 표명해 주신 회원,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한국YWCA연합회에서는 단체의 활동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의도적인 기사 내용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동시에 여러분들께 우리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YWCA는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진영논리에 빠져 무분별하게 보조금 지원을 받거나 이의 반대급부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온 사실이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기사에서 언급한 '한민족 여성, 백두대간에 올라 통일을 외치다'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 95명의 평화운동가들이 한라산을 순례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YWCA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22년에 100명의 평화운동가들이 백두산을 순례하는 것을 예정으로 진행 중인 'YWCA 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사업의 일부입니다. 1922년 연합회와 함께 지역에 창설된 광주YWCA, 서울YWCA가 매년 교대로 행사를 주관하고 전국에서 모인 여성순례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주관한 한라산순례에서는 제주4.3운동과 여성을, 2018년 광주YWCA가 주관한 지리산순례에서는 5.18 광주항쟁의 의미를, 그리고 2019년 서울YWCA가 주관한 태백산순례에서는 해의 각지로 흩어진 한민족여성들을 초청하여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2. "보조금 4,800만원으로 200여명이 5성급 리조트에서 숙박하면서 태백산을 등정했다"는 기사 내용은 이러한 행사의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비싼 숙소에서 보조금을 낭비하였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행사는 1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와 외국에서 온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210명이 참가하였으며, 이 인원 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답사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태백산 인근에서는 A리조트 외에는 섭외가 불가하여 행사의 취지를 이해한 숙소 측에서 60% 이상 할인하여 주었기에 진행이 가능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국YWCA는 2011년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지키는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2012년부터 탈핵과 에너지전환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여러 단체와 연대하며 전국적으로 지역에 맞는 다양한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교체기마다 관련정책을 공약으로 제안하고 이행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마치 보조금을 주는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탈핵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한국YWCA의 명예와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는 탈핵생명운동에 동참해온 모든 회원들에 대한 모독이므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에 집중하면서 운영에 있어 행정적인 절차나 사회적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한국YWCA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을 위해 내부적으로 계속 연구하며 고민하며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매체들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들을 폄하하기 위해 애쓸 것이며 저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틀린 것은 바로잡기 위해 단독으로, 또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하며 흔들리지 않고, 계속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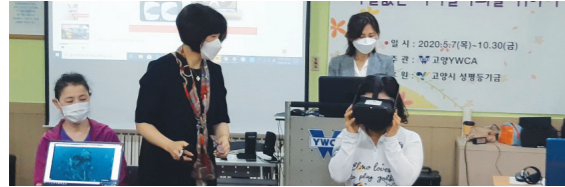
2020. 6. 9
(사) 한국YWCA연합회

경기지역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모두가 함께 누리는 차별 없는 디지털 사회를 위하여'



고양YWCA는 5월 7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 16회 차에 걸쳐 '모두가 함께 누리는 차별 없는 디지털 사회를 위하여'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 성평등 기금으로 시민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 비대면 서비스의 폭발적 증가가 노년 특히 여성 노인세대에게 디지털 소외문제를 불러오고 있음을 주목하여, 4차산업혁명과 여성의 삶 변화,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의 재생산과 젠더 문제 등을 공부했다. 향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고양시민 디지털정보이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젠더관점에서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사무실 이전



광명YWCA는 5월 20(수) 연합회 자립지원사업 전세매칭펀드를 통하여 광명시 하안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광명Y는 새 회관을 통하여 YWCA 목적에 맞는 활동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이다.

부천YWCA

이현순 사무총장

손뜨개 수업



부천YWCA는 5월 19일(화) 여성 창업팀 '내일을 뜨는 한코'

와 함께 노인참여나눔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손뜨개 수업을 진행했다. '내일을 뜨는 한코'는 손뜨개를 매개로 청소년, 고령여성,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여성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돕는 사업단이다. 이번 수업을 계기로 재능과 관심이 있는 어르신들이 파트너가 되어 손뜨개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성남YWCA

이진숙 간사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

성남YWCA는 5월 11일 (재)한국여성재단과 한부모이주여성가정에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온라인 업무 협약을 맺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상황 악화로 생활이 어려워진 성남시 및 인근의 10명의 한부모 이주여성가정에게 총 150만 원을 지급했다.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여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수원YWCA

강은진 간사

2020년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진행



수원YWCA는 5월 14일(목)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홍숙영 회원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서는 회원증모운동의 목적을 되새기며 지도자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놓인 우리가 회원단체로서 회원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아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또한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여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존경합니다'를 뜻하는 수어 동작을 함께함으로써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수원YWCA는 더 많은 회원과 YWCA의 운동 정신을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안산YWCA

홍지인 팀장

유아 환경교육 문화콘텐츠 개발 교육

안산YWCA는 5월 13일(수)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유아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을 개강했다. 환경이슈 중점교육, 그



림자 인형극 제작 등 총 12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시범공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림자 인형극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유아환경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안양YWCA

신재화 간사

회원 특강



안양YWCA는 5월 18일(월) 회관에서 2020년도 첫 회원 프로그램으로 특강을 열었다. '기후위기대응-미세먼지 바로알기'를 주제로, 재단법인 숲과 나눔의 환경강사가 미세먼지의 정확한 정의와 종류, 현상과 대처법 등에 대한 폭넓은 강의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안양YWCA의 방역을 믿고 참여한 회원 20여 명은 이번 강의에 매우 만족하며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더 좋은 특강이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경비원 교육



의정부YWCA 고령자인재은행에서는 5월 20일(수)부터 29일(금)까지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으로 경비원교육을 진행하였다. 면접으로 선발된 만 50세에서 65세 미만 장년 20명을 대상으로 구직다지기, 직업가치관 세우기, 경비 실무, 전기 화재 예방 및 응급처치법 등을 교육하였다. 총 53시간의 교육 수료 후 신임경비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있

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하남YWCA

김상미 간사

동일임금의날 댄스챌린지 온라인 캠페인



하남YWCA에서는 5월 11일(월) 합창단 단원들과 활동가들이 회관에 모여 동일임금의 날 댄스챌린지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결하라!'를 주제로 차별적 임금과 여성의 저임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동부지역

거제YWCA

박숙혜 간사

불법촬영 OUT! 유포 STOP! 클릭 ZERO! 캠페인



거제YWCA성폭력상담소는 4월 22일(수) 장승포일대 공공시설 및 상가에서 몰카 촬영 및 유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불법촬영 OUT! 유포 STOP! 클릭 ZERO!'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상가나 공용시설 화장실에 몰카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몰카탐지 필름을 나누어주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시로 몰카설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제29회 창립기념예배-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21주년

김해YWCA 창립 29주년 기념예배가 5월 27일(수)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1991년 5월 27일 창립 이래 지역의 대표적 여성단체

회원YWCA 소식



로서 성장해온 김해YWCA는 여성들의 직업 개발과 소비자보호·환경보호·청소년운동 등을 통해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다. 자원·실무활동가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황봉화 목사(김해행복한마을 교회 담임)의 '이제 시작이야'라는 말씀을 통해 김해YWCA가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대구YWCA 김보현 간사

지역업체 살리기 마켓



대구YWCA는 5월 29일(금)부터 30일(토)까지 대구백화점 야외주차장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역업체 살리기 마켓을 열었다. '위기를 기회로! 힘내라 대구!'를 주제로 소상공인·사회적기업·디자이너 의류 등 50여 개의 업체와 연계하여 착한 소비·착한 나눔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했다. 코로나19를 함께 잘 겪어낸 것과 같이 지역업체 살리기 마켓을 통해 지역이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산YWCA 강현영 간사

이사영성훈련



마산YWCA는 5월 12일(화) 이사영성훈련을 개강했다. 12주 차로 진행되는 본 훈련을 통해 자원활동가의 신앙적 정체성과

운동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부산YWCA 박보람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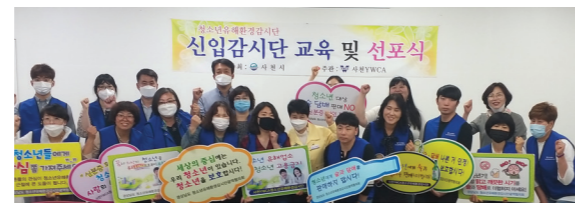
해피버스데이



부산YWCA는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해피버스데이'를 5월 20일(수) 시작했다. 지역탐방 프로그램으로, 부산 시내버스의 역사와 특징 등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부산 중구 근대역사길과 서구 비석길, 임시수도기념거리를 중심으로 투어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체관람이 어렵고 개관하지 않은 곳이 있어 아쉬움도 있었지만, 부산의 근·현대사를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선포식



사천YWCA는 5월 25일(월) 강당에서 감시단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신입 감시단 교육 및 선포식을 진행했다. 감시단의 역할,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 청소년 보호법,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의 사례 등을 교육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순찰 및 계도활동, 모니터링, 차량순찰활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실천다짐 인증샷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YWCA 조은진 간사

친환경 EM환경교육

양산YWCA는 5월 7일(목), 13일(수), 18일(월) 회관에서 양산 시민 총 6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EM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양산YWCA는 매년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살아 있는 유용미생



물 EM을 활용한 친환경교육을 통해 지역 내 환경활동가를 양성해왔다. 이번 교육은 EM이론교육과 EM친환경제품 만들기를 진행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된 손소독제도 직접 만들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생활 속 방역과 위생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무엇보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

울산YWCA 김예린 간사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울산YWCA 회원증모운동 발대식이 5월 18일(월) 강당에서 열렸다. 정주영 본부장(기아대책 울산본부)의 회원증모강의를 통해 회원증모 방법과 운동의 필요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대별 회원증모 슬로건을 정하고 공유하며 회원증모를 위해 결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진주YWCA 김태진 팀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태블릿PC 및 도서지원



진주YWCA는 4월 20일(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태블릿PC 100대를 기증받았다.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 태블릿PC는 지역내 아동센터 22곳에 전달되었다. 또한

공단은 5월 11일(월) 진주YWCA다문화 도서관 단비와 달팽이 어린이도서관에 400여 권의 도서를 지원하며 지역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19년부터 진주YWCA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진해YWCA 김미영 부장

아금바리 리폼교실 발대식



진해YWCA는 5월 15일(금) 진해YWCA 환경교육장에서 '아금바리 리폼교실' 발대식을 가졌다. 자원봉사자 15명과 강사 1명으로 구성된 아금바리팀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헌가구 리폼교실을 진행한다. 리폼 전시 판매금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창원YWCA 박선민 간사

평등한 가족 공동체 워크숍



창원YWCA는 5월 16일(토) '엄마, 아빠! 우리 함께 평등한 사회 만들어요!'라는 슬로건으로 평등한 가족 공동체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이용한 토론을 통해 우리 가족을 들여다보고, 건강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본 행사는 5월 16일을 시작으로 23일, 30일까지 진행했다.

통영YWCA 변은실 팀장

대중교통 방역 캠페인

통영YWCA는 4월 14일(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진행된 대중교통 안심이용 방역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사 및 실무활동

회원YWCA 소식



가 10여 명이 참여하여 버스 손잡이 및 정차벨 등을 소독했다. 통영시 여성단체들이 릴레이로 이 방역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통영YWCA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포항YWCA

김민경 간사

가정폭력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민간협약체결 및 간담회



포항YWCA는 포항YWCA소망의집 등 지역의 유관기관 8개소와 함께 5월 14일(목) 포항남부경찰서와 업무체결식을 가졌다.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위한 것으로, 지역기관 협력을 통해 가정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부지역

강릉YWCA

이신애 부장

희망찾기 교육



강릉YWCA는 5월 13(수)부터 14(목)까지 비전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찾기 교육'을 진행했다. 취업에 필요한 교육으로 더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며 교육을 진행했다.

동해YWCA

전민지 팀장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협약식



동해YWCA, 동해새로일하기센터는 5월 21일(목)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부모·다문화가족 여성에게 취업교육·상담 및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서울YWCA

성지희 팀장

청년홍보자문위원 위촉



서울YWCA는 5월 25일(월) 회관에서 제1차 청년홍보자문위원회를 열고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2030 디지털 세대이자 언론·인터넷·홍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청년자문위원회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온라인 홍보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위원회가 청년층의 활발한 운동 참여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속초YWCA

장은아 간사

민들레 재봉모임



지난 3월 코로나19 극복 활동으로 마스크 제작을 위해 만들어진 속초YWCA 민들레 봉사단이 '민들레 재봉모임'으로 정착했다. 5명의 회원들이 매주 월·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회관

재봉실에 모여 천으로 만드는 생활용품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3월 마스크 제작이 끝난 후 4월부터 계속하고 있다. 앞치마, 티셔츠 등 생활용품을 만들며 원하는 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재봉기술도 가르치는 재봉봉사모임도 결성되었다.

인천YWCA

박희은 간사

신임실무자 교육



인천YWCA는 5월 19일(화) 본부, 지부에서 총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YWCA 목적과 정체성, 중점운동, 회원운동 등을 알아보고, 활동가로서 목적과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YWCA

허현주 간사

아기돌보미 양성 교육과정



춘천YWCA는 5월 18일(월)부터 29일(금)까지 아기돌보미 양성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총 40시간으로 전문강사가 아기돌보미의 역할과 윤리, 신생아 발달과정 이해와 이유식 만들기 등의 실습으로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1m 자리배치와 매일 발열체크를 했으며, 교육생 모두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 돌봄 현장에서도 영·유아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했다.

서부지역

광양YWCA

허수진 팀장

특식 꾸러미 전달

광양YWCA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배식 대신 식품 꾸러미를 배분하고



있다. 5월 8일(금)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특별 이벤트로 특식 꾸러미와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작은 마음이었지만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해 더 큰 보람을 가졌다.

광주YWCA

배민희 국장

5월Y시민포럼



광주YWCA는 광주5·18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이하여 5월 14일(목) 5월Y시민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한 5월Y시민포럼에서는 '광주민중항쟁 때 기독교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의 희생정신과 항쟁의 역사를 다룬 강의를 진행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애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나가기야 함을 재인식하는 시간이 되었다.

군산YWCA

신하은 간사

신임실무자 교육



군산YWCA는 5월 14일(목) 본부, 여성인력개발센터, 어린이집 실무활동가 12명을 대상으로 신임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YWCA 목적과 정체성, 구조를 이해하고 실

회원YWCA 소식

무활동가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본부와 부속시설 활동가들 간의 유대와 협력관계도 다지는 시간이었다.

남원YWCA

임진아 간사

회원증모발대식



남원YWCA는 5월 11일(월) 회원증모발대식을 열었다. 코로나 19로 소규모로 진행된 이날 유정이 회장을 비롯한 자원·실무활동가들이 참석했다. 회원증모의 목적과 필요성, 회비운영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나누었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YWCA 동일임금의 날 온라인 캠페인



목포YWCA는 5월 13(수) 'YWCA동일임금의 날 온라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직원 교육과 함께 댄스 챌린지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동일임금의 날'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영상을 시청하여 한국 성별임금격차가 34.1%, OECD 1위로 여성이 남성보다 1년하고 84일을 더 일해야 하는 현실을 깨닫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촉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마음으로 직원들이 댄스챌린지 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올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코로나 확산 예방 캠페인

서귀포YWCA는 5월 14일(목) 서귀포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소년문화의집과 합동으로 서귀포 시내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청소년 보호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PC방, 노래방, 카페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지침 점검과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순천YWCA

신정옥 간사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순천YWCA는 5월 마지막주 토요일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열었다. YWCA 회원 기증물품을 손질하여 아름다운가게에서 직접 판매하는 봉사활동으로, 수익금은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비로 지원한다. 순천YWCA 자원·실무활동가와 회원들이 매년 활발한 참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자 했다.

여수YWCA

김예랑 간사

회원증모발대식



여수 YWCA는 6월 2일(화) 회관 강당에서 자원·실무활동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증모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명자 중경회장의 특강으로 회원증모 필요성에 공감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서 증모전략 상황극을 조별로 발표하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결의를 다졌다.

익산YWCA

김다영 간사

500만 그루 나무심기 성금 기부



익산YWCA는 5월 27일(수) 익산시를 방문해 '환경친화도시 푸른익산만들기'를 위해 성금 1백만 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위해 시민들이 헌수한 수목을 도시숲과 공원, 가로변에 식재하는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혜정 회장은 "지역의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회원프로그램 일상의 평화 찾기 운동



전주YWCA는 5월 가정의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해 매주 목요일 '일상의 평화 찾기 운동 꽃으로 전하는 마음' 회원프로그램을 전개했다. 코로나19로부터 오는 우울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꽃을 통해 마음 속 평화를 되찾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으며 소규모로 진행했다. 또한 꽃 상자, 리스 만들기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까지도 전할 수 있어 의미가 더 컸다. 향후 사랑의 먼 마스크 제작 등을 통해 회원들의 '일상의 평화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제주YWCA

박슬기 간사

'당당한 한부모의 터치' 특별강연



제주YWCA는 5월 22일(금) 회관 강당에서 '당당한 한부모

의 터치'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제주도 내 청소년한부모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혜성 박사(보아스 아동청소년상담센터 부소장)가 '우리아이 제대로 알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의에 참석한 청소년한부모 20여 명이 육아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부지역

논산YWCA

조은숙 주임

후원전달식



논산YWCA는 4월 24일(금) 빙그레 논산공장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품 후원 2천만 원 상당' 후원전달식을 가졌다. 논산YWCA는 후원 받은 유제품(바나나맛우유, 비타민젤리)을 논산 관내 어린이집과 돌봄 사각지대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논산YWCA와 빙그레 논산공장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달했다.

대전YWCA

안소진 간사

회원증모 기부나눔축제 발대식



대전YWCA는 5월 7일(목)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회원증모 기부나눔축제 발대식을 열었다. 회원증모를 앞두고 함께 나누는 우리의 기도, 선서 등을 진행했다. 30여 명씩 자원·실무활동가가 나뉘어 참석하였으며 개방된 넓은 공간에서 소규모로 진행, 마스크 상시착용,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도 철저히 지켰다. 이어 5월 11일(월)부터 6월 10일(수)까지 전개한 회원증모 기부나눔축제는 지역사회에 YWCA 활동 홍보와 재정기반 확보, 좋은 협력자 발견과 사회변화 도모를 위함으로, 총 12대 36조,

회원YWCA 소식

240명의 대원이 참여했다.

세종YWCA

양유정 간사

은빛환경지킴이 환경교육



세종YWCA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 은빛환경지킴이(EM) 사업단은 사업 시작에 앞서 5월 14일(목) 회관 교육장에서 환경교육 및 EM활성액, EM흙공 만들기 등 EM의 기능과 활용방법 등을 교육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이루어진 은빛환경지킴이 사업단(EM)은 올해 EM활성액과 EM흙공을 이용한 EM무료보급사업 및 홍보, 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성평등 활동가 양성학교



제천YWCA는 5월 21일(목)부터 11월까지 '성평등 활동가 양성학교'를 운영한다. 제천시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강사와 여성친화도시에서 성평등 활동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20~50대 여성 총 20명으로 선발된 교육생들은 양성평등 기본·심화 교육 수료 후 내년부터 제천시 관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평등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천안YWCA

박미숙 팀장

워킹대디 프로그램 사전준비

천안YWCA는 5월 7일(목)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일하는 아빠와 함께 하는 워킹대디 프로그램 '아이와 함께하는 요리놀이 통통통' 사전준비 모임을 진행했다. 워킹대디 프로그



램은 아빠와 자녀들과의 소통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날 모임에서 메뉴개발과 시연을 위한 사전준비를 했다.

청주YWCA

한기연 간사

울산 북구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 찬반 주민투표 지지활동



청주YWCA에서는 5월 26일(화) 울산 북구 주민들의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추가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돕기 위해 울산에 다녀왔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8km 거리에 인접해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은 핵폐기물 증설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물 건설을 막고자 한다.

충주YWCA

이예림 간사

'더함' 개관식



충주YWCA는 6월 4일(목) 회관 지하 1층 공간에서 자원·실무활동가와 회원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움과 나눔의 공간 '더함' 개관식을 진행했다. '더함'은 '답다, 더하다, 채우다'라는 뜻으로, 평생학습 공간 '채움', 성인동아리 공간 '세움', 청소년활동 공간 '키움', 휴게 공간 '비움'으로 나누어져 있다. 앞으로 충주YWCA '더함'에서 1천2백여 명의 회원과 시민 그리고 YWCA가 서로 성장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로 치료받은 A씨의 진료비 영수증

□ 의료 보험 (보통환 □ 중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본사등록번호	환자 성명	진료기간	의료공용일련번호
15771000	김국현	2020. 3. 30 부터 2020. 3. 29 까지	□ 이대 □ 공평 □ 영수증번호(일련번호)
간담내과	발행근대(내과)번호	영일	간담내과 20200329-15771000
간담내과	간담내과	331	간담내과
항 목	금 액	비 금 액	금액산정내용
진료료	139,278	599,112	① 진료비 총액 (10+10+10+10)
입원료	1인실 789,388	6,598,092	② 환자 부담금액 (10+10+10+10)
식 대	171,690	171,690	③ 통장입금
환약료	9,278	39,112	④ 기타
진료료	27,215	108,897	⑤ 기타
주사료	약품비 145	581	⑥
약 회 료			⑦
처제 및 수술료	15,822	63,270	⑧
진 시 료	280,311	1,125,156	⑨
영상 진단 료	9,005	36,010	⑩
치료 재료 대	1,440	4,572	⑪
제할 및 물리치료료			⑫
통 안 료 료			⑬
진찰 및 혈액검사료			⑭
C T 진단 료	60,784	60,784	⑮
배 R T 진단 료			⑯
P E T 진단 료			⑰
초음파 진단 료			⑱
진찰 료			⑲
합 계	1,306,090	6,765,240	⑳
환 약 료			㉑
요 약 기 관 료			㉒
시 업 자 동 료 번 호	123-45-678912	상 호	
시 업 장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강관로 33(한곡동)	2020년	

총 진료비: 10,273,290
 - 건강보험공단부담금: 8,767,240
 본인(환자)부담금: 1,506,050
 - 정부지원금: 1,506,050
 ★ 납부금액: 0원

※ 위 영수증은 실제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진료비 내역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세계로부터 칭찬받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 우수한 의료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있어 가능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